

## “평화와 인권은 불가분”...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

오세훈 시장 “북한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번 북한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 포럼 외에도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선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개회식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환영사를 전한 오세훈 시장은 “올해는 국제적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내적으로 북한인권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기 위해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의미 있는 해”라며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인권이란 국가와 이념, 빈부와 지위를 초월하고 시대와 공간을 넘어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며 “그러나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은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인권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북한인권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축사를 전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그간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포럼을 개최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검토해 나간다면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북한의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들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인도적 소용돌이 그리고 무력 도발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해 주민 통제와 외부



2024 북한인권서울포럼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반기문 사무총장

김영호 통일부장관

정보기 차단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법으로 틀어막고, 문화와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통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한미동맹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끈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평

화와 인권은 불가분의 가치이다. 인권이 탄압받고 부정 받는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소통과 공감함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서 애타게 살아야 할 수 있도록 정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축사를 전한 김영호 장관은 북

한인권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자유를 열망한 시민들로 인해 무너진 사례를 말하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뜻을 공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통일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의 의지를 북한주민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삶에 대한 조항이 담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는 7월 21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려 할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과 통일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 주제의 포럼이 진행됐다. 이진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좌장으로 △줄리 터너(미국 국무부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허너(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동서대 국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줄리 터너 특사는 “올해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며,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 특별한 날”이라며 “현 정부의 활동 중요성을 말

하고 싶다. 미국과 한국이 누리는 자유를 북한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출장을 다닐 때,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며 “이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생각을 준다”고 했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제가 만난 탈북민들은 해외 콘텐츠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COI의 특별보고서가 이행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민에 대한 책임, 국제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인권관제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발언한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을 계속해서 촉구한다. 북한에게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하며, 책임규명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예외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고통을 대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자행한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전했다.

한편, 이후에는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세션2가 진행됐다. 세션2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유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전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일혁 북한연구소연구위원(북한인권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장요한 기자

## “국제로잔, 총체적 선교 내세워 복음전도 우선성 훼손”

한국로잔대회를 반대하는목회자연합, 11일 기자회견 개최

한국로잔대회를 반대하는목회자연합(대표 조덕래 목사, 이하 목회자연합)이 11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4차 한국로잔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제로잔은 소위 총체적 선교를 내세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도 우선의 선교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사회의 불의한 문제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하며 성경적 복음선교에서 크게 벗어

나며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로잔은 서구 유럽에서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돼 서구 유럽 교회가 무너질 때 오로지 침묵과 방관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것은 국제로잔이 주장하는 사회 복음화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진리와 무관한 것임을 방증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로잔의 성경관은 자유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의 영향 아래 있다”며 “성경의 완전 무오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반대한다”고 이

야했다.

특히 “국제로잔대회는 신복음주의를 외친다. 신복음주의는 새로운 자유주의 운동으로서 견지하는 회색주의와 포용적 태도는 성경비평을 용인한다. 결국 ‘성경은 영감됐으나 무오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아울러 “2차 로잔대회(1989.7.10.-20, 필리핀 마닐라)는 다섯 명의 강사가 신사도 운동가들이었고, 3차 로잔대회(2020.10.16.-25, 남아공 케이프타운)는 안타깝게도 비성경적인 혼합주의자들과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복음주의 속으로 초대하는 대화였다”고 했다.

목회자연합은 “국제로잔은 이렇게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상은 종교 다원주의화된 에큐메니칼을 지향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와 같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국제로잔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며 복음에 다른 무엇을 섞거나 가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며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대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예장 합신 소속 김



목회자연합이 로잔대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형구 기자

선우 목사는 “교회는 딱이 아닌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했다. 오직예수사랑교회 대표 허장 목사는 “국제로잔은 타종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선교하는 태도를 견지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타종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며 선교하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예장 합신 동성대대책위원회 위원 오중

문 목사는 “로잔대회의 총체적 선교론의 영향에 따라, 선교 현장에선 봉사 활동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외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성공회의 한 주교는 ‘타인을 사랑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외면한 반쪽 진리로, 로잔대회의 영향 탓”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

GS 건설

### 2024년 반드시 잡아야 할 오피스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1.10 대역  
주택수 제외  
오피스텔

4,915세대  
대단지  
오피스텔

압박적인  
분양가  
2억원대

단지 내  
영화관 등  
원스톱 쇼핑

**교통 프리미엄**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과 신이문역 더블역세권, 9개 노선(예정)이 통과하는 청량리역 2정거장  
**임대 프리미엄** 5km 내 외대, 경의대, 시립대, 광운대 등 13개 대학과 다수의 종합병원 등 풍부한 임대수요  
**생활 프리미엄**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상봉동 코스트코의 쇼핑안락과 청량산과 청량리의 자연환경 프리미엄  
**복합 프리미엄** 4,915 이문 아이파크 자이 대단지 맨 앞, 메가 쇼핑몰을 단지 안에서 누리는 원스톱 복합 프리미엄

**24m<sup>2</sup>A**  
528실

전 용 면 적 24,6700㎡  
공 용 면 적 11,0814㎡  
공 급 면 적 35,7514㎡  
기 타 공 용 면 적 24,4012㎡  
계 약 면 적 60,1526㎡

**IPARK X**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전매제한 無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분양중 1600-4452**

오피스텔 총 594실(일반분양 584실) : 24㎡A, 528실 | 36㎡B, 22실 | 52㎡C, 22실 | 39㎡D, 22실  
※ 이문3단지(이문3지구)주택개발사업사업장 ※ HDC 현대산업개발 GS GS 119 1199 SEONO CAD ※  
※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지정 변경계획은 해당기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내용은 건축실제, 인·허가, 관련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룩한방파제, 국토 최북단 432km 5차 순례 나선다



거룩한방파제 제5차 국토순례 출정식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고 있다. ©김상고 기자

7월 10일~8월 5일 일정... “차별금지법·퀴어축제 등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퀴어축제 반대 운동으로 잘 알려진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가 5차 국토순례에 나선다. 이번 순례는 10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6박 27일 동안, 인천 강화에서 출발해 강원도 설악산까지 약 432km에 걸친 구간을 걷는 일정이다. 순례 경로는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의

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설악산 순으로, 국토 최북단의 휴전선이 있는 지역과도 겹친다. 순례는 10일 오전 11시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시작됐으며, 8월 5일 설악산에 도착해 끝날 예정이다. 거룩한방파제는 2015년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교단, 시민단체가 연합해 퀴어축

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단체다. 2023년부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퀴어축제, 학생인권특별법, 성혁명 교육과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생활동반자법, 아동기분반안 등에 반대하는 연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측은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와 가정을 파괴하고 학교와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지적했다. 거룩한방파제의 국토순례는 지난 2023

년 5월에 1차 순례로 시작했다. 1년에 세 차례씩 진행되는 국토순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5개년 계획으로 우리나라 전국 226개 시군구에 거룩한방파제를 세운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는 “이번 순례에서도 지역 사회, 교회와 연합해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학생인권법, 성혁명교육과정에 반대하는 전국적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172차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 북한자유주간과 연대

매일 십시 36도의 폭염이 이어지는 워싱턴 DC에서는 매주 빠지지 않고 통일광장 기도회가 란건 기념센터와 한국전 참전용사 공원 사이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9일 오전11시에 진행된 172차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했다. “중공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의 진상증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1차 북한자유주간 일정을 위해 한국에서부터 참석한 탈북민 3명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가 사회를



기도회 참가자들이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김대원 기자

운 사연을 전했다. “국경을 넘어 탈북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잡힌 것을 전혀 몰랐다. 알았으면 탈북을 중단했을 것”이라면서 “아들이 북송된 것을 알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살아야 하는가'였다. 정치범 수용소는 죽음과 같은 곳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근방에서 미 의회 증언을 마치고 곧바로 합석한 북한자유주간 참가자들은 이날 통일광장 기도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 같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방문’ 김건희 여사 “이승만 위업 재조명되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한 ‘독립운동 산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미국 하와이 현지 시간 9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한 독립운동의 산실(産室) 한인기독교회를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이 10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1938년 광화문 모양을 본바 현 위치에 신축한 교회 외관을 둘러보고, 작년에 설치된 국가보훈부 독립운동 사적지 동판과 1985년 교인들이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보며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한인기독교회의 역사를 청취했다.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 시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김 여사는 한인기독교회 내 전시관인 독립기념관과 교회 예배당 내부를 돌아보며 100년 전부터의 다양한 사료를 살펴보고,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기도했을 한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이토록 애쓰셨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잊혀진 위업이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곳의 역사가 미주 한인 이민 역

사이자 독립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며, “조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하와이 동포들이 120여 년간 하와이와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미 동맹의 가교역할을 해주셨다”고 했다. 한인기독교회 이재호 담임목사는 김 여사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축사에 서 설교와 기도로 “조국이 계속 발전해 번영하고, 대통령 내외분이 큰 지혜를 가지며 이번 방미 일정 중 안전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니 매우 뜻깊었다”며 하와이 동포분들과 교감하

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인기독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민족 선각자들이 국권 회복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성지(聖地)로서, 울출영화 ‘건국전쟁’ 상영을 계기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설립 106주년을 맞는 한인기독교회는 교인들 중 12명이나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을 정도로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며, 독립운동에 대한 교회의 기여를 인정받아 2023년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 사적지 동판을 설치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 우리는 간다. 기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한적십자사

## 교계, 국가유산청과 근대 기독교 유산 관련 협의

신유철 종교유산협력관, 한교총·NCKC·기공협 방문

문화재청이 지난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유산정책국에 종교유산협력관을 두어 종교유산 관련 종교계와 소통에 나섰다.



문화재청 신유철 종교유산협력관(오른쪽 아래)이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총무관(오른쪽 위)과 함께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왼쪽 아래)와 법률위원장인 권순철 변호사(왼쪽 위)를 만났다. ©기공협

이는 전통문화에 해당하는 불교문화유산에 집중해왔던데서 이제는 기독교, 가톨릭 등 근대문화에 기반한 종교유산 보존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공협)는 밝혔다. 신유철 종교유산협력관이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해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를 예방했다. 이어 9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를 방문해 김종생 총무를 예방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와 정책위원장 겸 법률위원장인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를 만나 국가유산청의 종교유산 관련 환담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총무관도 자리를 같이 했다. 기공협은 “세 기관은 종교유산 보존과 관련 근대문화보존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종교문화 예산 배정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해결 것을 강조했다”며 “또한 근대 문화유산보존법을 국가유산청이 나서서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해 줄 것과 특정 종교가 이를 반대하지 않도록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순철 변호사는 “대검찰청 국제협력 단장으로 있을 때 해외에 있던 불교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을 하면서 화재청(국가유산청 전신)과 긴밀한 협력을 했다”며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기독교계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유철 협력관은 “한국 기독교 관련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사적은 3곳,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38곳이다. 불교는 970여 곳 정도”라며 “종교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한국교회봉사단, 집중호우 피해지역 구호활동 펼친다

최근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이 피해지역 구호활동을 진행한다. 최근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장맛비가 퍼부으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산사태위험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가운데, 그 밖의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남부 곳곳에도 산사태특보가 내려져 있다. 한교봉은 전체 150가구 중 수해피해 100여 가구와 원전 수물 13가구가 있는 경북 안동(위동)과 영양(입암)을 오는 11일 먼저 방문해 수해피해 상황을 살피고

위동교회(담임 정영래 목사)에서 피해마를 주민들에게 점心和 저녁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현장 방문에는 한교봉 부분부장관으로 섬기고 있는 김동국 목사가 담임하는 대전시민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수해민들의 아픔을 함께 돌보고 위로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영양(입암) 지역에서 희망차차 운영을 한다. 한교봉은 “피해가 있는 각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교봉은 “폭우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



경북소방 119구조대원들이 10일 오전 경북 안동시 녹전면 서삼리 도로변에서 집중호우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고 삶이 무너진 이재민과 피해 교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세계선교대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본당 및 KDC서  
선교사 및 선교사 가정 5백여 명 로컬 참가자 2천여 명 참가

2024년 KWMC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7월 8일 오후 3시 남가주 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에 전세계 곳곳에서 온 각각 다른 사역과 환경 속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와 가족들이 “예수, 구원의 그 이름!”(Jesus No Other Name!, 행 4:12)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된 가운데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조용중 선교사(KWMC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통성기도, 쇼파르 연주(Robert Weinger, Believing Jew 의 7명)에 이어 고석희 회장(KWMC 상임의장)이 개회사 및 개회선언을 하며, 각 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은 시를 낭독하며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500명 이상 선교사님들이 모이셨다. 2016년 아주사 대회 때 2만 8천명 선교사님들께, 그 자리에 참가하신 천 2백명 선교사님들께 사랑의 헌신을 찬양하는 시를 드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시아 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 찬양의 시를 드린다. 천년의 바람/ 하고를 흔든는데/ 한 줄 속된 세상/ 결결 웃어 넘기고/ 뜬 구름 무너져/ 히말라야 산각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이”

“중동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 드린다. 빈 마음 한 자락/ 열풍에 나부끼며/ 천명을 짊어지고/ 등뼈가 휘어져/ 붉은 노을 떨어지는/ 사하라 사막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이”

“중앙아시아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 드린다. 찬 바에 젖은 머리/ 찬 바람에 말리며/ 돌아서서 굶은 눈물/ 손등을 훔치는가/ 푸른 달빛 부서지는/ 바이칼 토반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이”

이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정현 목사는 “1988년에 미주 한인교회가 세계선교의 마무리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토폴 문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우리 시작은 미미하고 겨자씨처럼 작아보였을지라도 지금은 큰 나무가 되어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주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격려했다.

MK연합찬양팀의 찬양, 이상진 장로(GBS 사예틀의 대표기도, Anju Panta(네팔 가스펠 가수)의 특송, 계시록 24-5 봉독 후 이승중 목사(대표의장)가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승중 목사(대표의장)는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앞서가던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의 어머니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본다. 성경은 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핑계하고 한국교회가 많이 아파간다. 이민교회 수백 개가 문을 닫았다. 처음 사랑을 핑계 쳐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했다.

“교회가 세상보다 큰 것이 될까? 건물일까? 사람의 수일까? 종교적 권세일까? 한국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경제적 불황, 정치적 불안정, 찬란했던 선교의 열정과 역사가 지금은 많이 퇴색된 거 같다. 온-오프라인으로 나뉜 교회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이국종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환자는 돈 낸 만큼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민교회, 한국 교회, 세계교회를 보라. 코비드 19 이후 여전히 교회는 아파한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무엇을 바라보는가? 6백에서 1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 교회들은 어디에 갔나?”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한다. 예수를 좀 제대로 믿을 수 없냐고. 좌절과 도탄 가운데 빠졌을 때,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당당하게 자신의 가슴을 역사와 하나님께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기다린다.”

이승중 목사는 오늘날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처방전이 바로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될까? 처음 사랑이다. 누구든지 왔다가, 빈부귀천, 배움 집안 내력 아무 관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유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힐링 캠프가 교회이다.”

“몇 주전 영국 런던을 다녀왔다. 성령운동이 일어난 곳에 갔다 왔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모두 표정이 우울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말을 했다. 인도에 가서 30년 선교하고 돌아왔더니 영국이 선교지로 바뀌어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한국이, 북미주가 선교지로 바뀌어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밥을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았다. 늦도록 울면서 기도했지만 첫사랑의 힘이었다. 예배당에만 들어서도 눈물이 쏟아지는 때, 걷다가도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걸었다.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될까? 예수. 그분은 베스트 God이 아니라 Only God이다.”

설교 이후 박은성 목사(공동동장단) 성찬식을 집례했고 최일식 목사(명예의장)가 축도했다.

첫날 두 번째 순서로, 권혁빈 목사(씨드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Keynote Speech)에서, 김앤드류 선교사(GMP 이사, Global Connections for Advancement 대표)가 “Let there be Missions”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고, 조용중 선교사(KWMC 사무총장, Missional NGO 글로벌호프 대표)가 KWMC의 세가지 중요한 목표에 대



개회예배가 조용중 선교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개회예배에서 쇼파르 연주(Robert Weinger, Believing Jew의 7명)를 하는 모습. ©남가주 사랑의교회



고석희 회장(KWMC 상임의장) ©남가주 사랑의교회

해 전했다.

남반구 선교를 위한 선교 컨설턴트를 하고 계시고 현장 선교단 40년째 선교사인 김앤드류 선교사는 6개월 간 물이 끓고, 물 차가 동네로 찾아 오지만 그마저도 여유롭게 물을 살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삶, 전기공급이 끊겨 더위에 울고 있는 세상밖이 아들을 달래보려 하지만 아이 울음 소리는 줄어들지 않는 선교사의 삶을 이야기 하며, 그 책박한 선교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느끼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뿌연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싫고 너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홀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막내 아들은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늘 안타까워 하신다. 사명이라고 선 길이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역지는 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고독감이 밀려올 때면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우리 선교사들은 모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같다. 형편 없이 부족한 재가 41년째 필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지만 하다.”

이어서 ‘10차 대회의 4대 목표와 MK가 바라는 선교사의 삶(로움, 가난, 명예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안, 복음의 열매)을 이야기하며, “가난하고 외롭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인정하지만 선교 사역 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선교 그 영역별 포럼에서 영역별로 토론과 성찰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선교 방법, 방향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남반구 선교의 특색 및 사례들을 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예배 및 집회는 본당에서, 영역 강의는 본당 각 교실과 KDC에서

2024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7월 8일)는 남가주 애너하임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교회 본당과 본당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김앤드류센터(KDC)에서 7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부터, 7월 11일(목) 오후 1시 까지 3박 4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개회예배 및 주제강의, 아침집회, 저녁집회(일-

수) 성경강해 등은 본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전문영역 & 일반영역 강의(교육, 기관 선교, 기술과 선교, 난민, 다문화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위기관리, 전방개혁, 통일선교, 영 제네레이션 등)는 남가주 사랑의교회 건물의 여러 톨들과 KDC의 클래스룸 및 여러 공간에서 각 영역별로 둘째날과 셋째날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총 8시간이 진행되어, 2천 5백여 명의 선교사 및 로컬 참가자들이 관심 있는 영역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선교현장과 신학교육-김의원 교수(천종신대 총장), 엘리트선교사 자녀 교육-정엘린 박사(몽골 UBMC 국제대의 협력처장), 무엇이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칼빈대 조은섭 교수,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속의 성경의 진리 출애굽시 문자가 없었다는데 하나님은 주신 십계명의 문자는 무엇인가- Douglas Petrovich, DNA Editing, 인간수명연장: 인터넷 혁명, 화폐혁명 등의 이슈와 기독교-켄안 선교사, 도피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난민)-김대영 목사,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흐름과 유럽 디아스포라, 난민 사역의 개관-김성훈 선교사, 재난지역 속의 문화예술선교의 실제(공연)-공민 선교사(The BRIDGE Ministry 대표), 디지털 제자 세우기 박성준 선교사(파키스탄 한인선교사 협의회 회장), 비즈니스, NGO, 교회 3기관의 유기적 관계-황진호 선교사 등 수 많은 영역별 강의를 진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kwmc2024.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WMC 책자에는 각 예배 및 각 영역별 발제자들의 발제문 전문을 QR코드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하여 각 영역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본관 외부와 식당에는 각 선교단체, 신학교 등의 안내부스를 마련해, 관심 있는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왔다. 21세기 말씀의 삶, Crescent Projec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ateway Seminary, MK BEAN, Seed International, United Theological Seminary, World Mission University, World Vision Seminary, 모퉁이들 선교회, 물한그릇 선교회, 커넥션스쿨(KCCC)을 비롯한 다수의 단체들의 부스가 설치되었다. 주디 한 기자



Anju Panta(네팔 가스펠 가수)가 특송을 불렀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이승중 목사(대표의장)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개회예배 후 주제발표 시간에 권혁빈 목사가 사회를 봤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개회예배 후 주제 강연을 전한 김앤드류 선교사(GMP 이사, Global Connections for Advancement 대표). ©남가주 사랑의교회

**나의 내일에 확신이 생겼다**

삼성생명FC

잘할 수 있을까?  
삼성생명을 만났을 때,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동료들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  
모두 다 함께 성장하니까

삼성생명 FC 지원상담문의

프리미엄 고객사랑 서비스  
고객 방문용품을 지원합니다

코칭 매니저(CM)  
전담 CM이 성공적인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사랑On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문의: 24시간 365일 상담센터 (02-2272-1111) | 2024.05.13 ~ 2025.05.12

본 광고물은 임직원 체험이 아닌 컨설팅의 모습입니다.

# “기독교신앙의 아름다움, 고통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 찾는 것”

김선권·김 석 박사·윤형진 목사, 제3차 온신학 연구위원회 모임서 발제

온신학(회장 최태영)가 최근 서울 송파구 소재 광성교회(담임 남광현 목사)에서 제3차 온신학 연구 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선권 박사(장신대)가 ‘칼뱅의 기쁨의 신학’ ▲김 석 박사(장신대)가 ‘온신학적 생태 이해의 정치 신학적 실천 연구-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의 생명과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윤형진 목사(위클리시아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적 교회 운동 연구-위클리시아 교회의 민족지 연구와 온신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칼뱅의 십자가의 기쁨

먼저, 김선권 박사는 “칼뱅에 따르면 기쁨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서 기인한다”며 “기쁨은 처음부터 창조되었던 것이기에 기쁨의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은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회로애라 같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과도함이나 절제하지 못한,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과 그의 은총 안에서 찾는다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잊고 등지며 세상에서 기쁨

을 찾는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하면서 세상 재화에 대한 양 극단적 태도인 ‘지나친 엄격’과 ‘방종(무절제) 사이에서 중용을 추구한다’며 “지나친 엄격은 삶에 필요한 재화만 사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삼간다. 방종은 지나친 낭용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얼마든지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존재임을 지적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낭용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할 수 있다”며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칼뱅은 그것으로 삶이 제한되면 탐욕의 형태를 띠수 있음을 경고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하며 행하는 모든 일은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삶과 관련된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은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살기(영생)를 위해서 먹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칼뱅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비인간적 철학이라 여겼다. 스토아 학파에 의하면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과도한 충동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것



제3차 온신학 연구 위원회 모임 진행 사진 ©온신학회

은 감정(정념)이 없는 상태인 아파테아(apatheia) 무정념(부동심)의 상태”라며 “칼뱅은 고통 자체를 높이거나 그 자체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스토아주의자들처럼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무정념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그 중심에 십자가의 즐거움을 놓았다”고 했다.

이어 “칼뱅에게 십자가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참여로 보았다”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고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이요 또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행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스토아 학파가 감정의 제계를 주장했다면 칼뱅은 타락 이전 감정의 선한 창조를 믿었지만 타락 후 감정이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에 감정의 정화 즉, 감정의 성화를 주장한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강조한 것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에게 지성과 의지의 변혁뿐만 아니라 감정의 변혁을 추구한다. 성화의 자라는 지성의 인식적 차원 마음의 의지적 차원과 더불어 감정의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칼뱅은 스토아 학파의 운명 개념을 비판하며 이를 부정적 섭리로 대체하며, 우리의 지상적 조건과 우리의 미래 삶을 반복해서 대조하고 신자에게 미래 삶에 대한 목상에 의해 그의 감정을 변화하며 절제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무정념과 운명에 대한 칼뱅의 신적 섭리와 미래 삶의 목상에 대한 강조는 첫째, 인간의 반역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 박탈, 비참 등은 하나님이나 신자를 초자연적인 목적적인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둘째로 기독교인들은 더 큰 목적을 인식하기에 현재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 슬픔, 분노, 비통함이 그들을 압도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칼뱅은 외적 상황이나 환경에서의 탈주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참여를 주장한 것”이라며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점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 ◆온신학적 생태 이해 실천을 위한 아감벤의 ‘생명정치론’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김 석 박사는

“포스트 팬데믹과 글로벌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기독교는 창조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인식을 에고(ego)에서 에코(eco)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온신학과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은 인간과 생태계 상호 관계성의 특징을 강조하며, 생태계의 유기적 전체성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생태계 전체의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며 전체 생태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믿음에 근거를 둔 일반 생태학의 주장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신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온신학의 생태 이해는 모든 생태계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는 신학이다. 온신학은 인간 중심적 신학을 넘어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신학이기 때문”이라며 “온신학의 생태적 실천을 위해 인간을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고 발거벗은 생명으로서 생태계 존재를 이해하는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적 통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와 권력 구조가 인간의 생명을 통제하고 관리하듯, 생태계도 벗겨벗은 생명으로 법적 정치적 권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인식하는 신학적 사유로의 확장이 요청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온신학의 인간 이해는 이 생태계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며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정치지적 존재로 인간을 이해한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온신학의 생태 이해는 인간의 생태계를 향한 권력의 남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신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의 경계를 확장하고 현대사회와 문화 속에서 신학이 더욱 실제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신학”이라며 “이것은 온신학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실천하는 신학이어야 함을 의

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온신학의 생태 이해도 살림과 생태 영성을 통해 생명의 고유성과 가치에 대한 존엄성을 이해하고,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신학적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적 교회 운동 연구 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발제한 윤형진 목사는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위기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한국교회와 현재 위기 라고 표현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 사회 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세대 성도의 교회 이탈이다. 교회의 다음세대는 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전수하여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적 역할을 갖춘 세대”라고 했다.

이어 “이들의 부재는 교회 전체의 발전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이들의 자녀 세대인 유아-청소년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윤 목사는 연구 목적에 대해 “첫째, 다음세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둘째는 지속적인 교회 이탈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탈한 다음세대 성도들이 대안적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로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적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신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넷째로 기독교의 종교적 기능의 회복과 교회의 공신력 회복의 방법을 탐색한다”며 “연구를 통해 교회가 종교적 기능을 회복하고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어서 연구방법과 대상 그리고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장요한 기자

2024.6.3.Mon — 8.11.Sun

# 더 행복한 공모전

## 공모내용

**참여대상** 육아를 하고 있는 전 국민

**공모부문** 영상, 수기(개인 부문), 수기(회사 자랑)

**공모주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고마웠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 가정, 사회에서 생긴 재미있는 육아 에피소드 회사에서 생긴 감동적인 에피소드 또는 육아 지원제도로 든든했던 이야기 등

**공모일정** 접수 기간 6월 3일(월) ~ 8월 11일(일)  
수상자 발표 9월 3일(화) 예정 (개별통보)  
시상식 일정 10월 중 예정

**접수방법** yuk\_a@withculture.com

1. <https://blog.naver.com/withcult/223464847401> 혹은 QR코드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2.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공모 신청자와 함께 이메일(yuk\_a@withculture.com)로 접수

**시상내역** 총 상금 1,0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구분	영상	수기(개인)	수기(회사자랑)
전체 대상	1인 3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100만원	80만원	80만원
우수상	70만원	40만원	40만원
장려상	20만원	10만원	10만원

\*수기(회사자랑)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추가 증정 사항 소속된 회사에 커피차를 보내 드립니다.  
(단 '전체 대상' 이 수기 회사자랑일 경우 대상 수상자에게 증정)

**문의처** 더행복한공모전 운영사무국  
메일 주소 yuk\_a\_inquiry@withculture.com  
전화 번호 070-7780-4490

주최·주관 조신일보 CULTURE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자살예방 교육’ 온라인 허용에… “유명무실해질라” 우려

12일부터 지자체·초중고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 예산 부족에 온라인 교육 허용… 대면교육 위축 자살위험 높은 대안학교 의무교육 대상서 빠져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오는 12일부터 지자체, 초중고,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대안 학교가 자살 예방 의무 교육 대상에서 빠져있고, 온라인 교육 허용으로 대면 교육 위축 우려도 제기돼 자살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연간 1회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등을 일깨우는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 또는 자살 위험 요인자살 경고 신호 등을 공유하는 ‘생명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가 실제 자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최근 자살 연령이 낮아지면서 자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졌지만, 정부의 온라인 교육 허용은 이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자살한 초·중·고생은 193명으로 2018년(144명)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무려 266.7%(3명→11명) 급증했다.

자살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과 자살 예방 활동가들은 “강사용 대면 교육 교제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이 허용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대면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주선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생명문화

라이프코프 사무국장은 “정부가 온라인 자살 예방 교육을 승인한 것은 자살 예방 교육을 민방위 교육과 동급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환경보호 캠페인도 아니고 아이들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인데, 동영상만 틀어 놓고 들으라고 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수강자가 들지 않으면 일방 통행으로 흐르기 쉽다. 현장 교육처럼 궁금한 점을 바로 묻고 확인할 수 없다. 김 사무국장은 “각각 처한 환경이 다른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후 발생할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주간이 있지만 담임 교사가 자료를 소화해 수업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흡연·마약 예방 교육처럼 외부의 전문 강사가 투입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살 예방 교육 의무 대상에 학교를 다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대안 학교가 빠진 것도 자살 예방 교육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도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3배를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 연 1



시흥시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다꿈 담소회’를 열었다. ©시흥시

회 의무화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대안학교 같은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소외감이 크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자살 사고가 많아 더욱 적극적인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 예방 교육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대면 교육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박기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는 “자살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센터가 필요하고 강사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 후 평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요명을 벗어나려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예산은 올해 31억 원으로 지난 2021년(48억 원)에 비해 17억 줄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예산은 지난해 488억 원에서 올해 508억 원으로 늘었지만,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영미 기자

# 정부세종청사 2024 맥추감사 연합예배 성료

## 250여 명 기독교무원 참석

정부세종청사선교연합회(회장 최은희)와 국무총리실기독교교회(회장 오정우)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4년 정부세종청사 맥추감사 연합예배'가 지난 10일 11시 50분 정부세종청사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250여 명의 기독교무원들이 참석했다.

예배는 오정우 국무총리실 선교회장의 사회로, 세종청사선교연합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 홍지원 부회장(선교연합회 부회장, 문체부선교회)의 대표기도, 오정우 회장(국무총리실선교회)의 성경봉독, 연합성가대의 특송, 유병수 목사(사랑샘교

회)의 설교의 순으로 진행됐다.

맥추감사절은 보리 수확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국교회의 전통 절기로, 한 해의 전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이다. 이날 예배에서 유병수 목사는 구약의 맥추절과 칠칠절의 신약적 성취 의미인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적용하여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대해 설교했다.

유병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모든 절기는 예수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로서 절기를 통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정부세종청사 2024 맥추감사 연합예배 기념 사진. ©정부세종청사선교연합회

의 인생과 삶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히 구약의 맥추절(칠칠절)은 신약적인 의미의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은, 5월에 교회력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바로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복음에 대해 알기 시작했고, 그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오늘날 한국교회 세 종사의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특별히 각 부처의 신우회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부르심이자 사명"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무총리실 기독교교회 회원들이 한목소리로 봉헌 찬송으로 '감사'를

부르며 예배자들이 마음과 예물을 드렸고,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선교회장의 봉헌기도 후, 유병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는 마무리됐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선교연합회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25개 부처와 위원회의 선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합회는 매년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연합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매주 노방전도 실천, 매월 구국기도회, 상하반기 직장선교대학 훈련 등을 통해 공직 내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 서울연탄은행 연탄교회, 19일 설립 9주년 기념예배 개최

서울연탄은행 연탄교회(대표 허기복 목사)가 오는 1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소재 연탄교회 사무실에서 설립 9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헌금 전달, 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예배 주제는 '연탄교회와 백사마을 9만리장천'으로 '9년 동안 연탄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과 추억들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연탄교회는 전했다.

이번 기념 예배는 은행연합회 봉실아리에서 어르신 기념품 쌀 70포를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루트(조강민 대표)에서 어르신 식사비 후원 및 기념 예배에 참석해 자리를 빛낼 계획이다. 또한 이날 어르신들에게는 식사가 제공된다. 기념액자, 쌀, 담례떡, 생수 등 여러 선물이 나온다. 또한 연탄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십사일반 모음 헌금 백만원을 연탄은행의 새로운 사역자인 태국 사하미트 밥상공동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지 태권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도복(80벌) 구입 비로 사용된다.

연탄교회는 '가난하지만 타자를 위한 교회를 지향하며 2015년 7월 1일 기독교 실천윤리운동본부로부터 '밥상공동체 좋은교회(기관)'로 지정돼 받은 상금 300만원으로 설립됐다. 지난 9년간 239회 진행된 수요예배에 6,540명이 참여했고, 182회 진행된 금요성경에 3,836명이 참여했다.

연탄교회는 지역사회의 나눔에도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다. 2017년 4월 26일 푸르메재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천 원의 가치'를 진행 및 후원하였고, 6월 30일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새언약교회 예

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 봉헌식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부산연탄은행 이전을 위한 후원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전국의 연탄가구를 대표하여 연탄값 인상에 반대하는 청와대 시위에 참여하여 연탄가격 동결을 이루었다.

또한, 2021년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설 '늘푸른집'을, 2022년에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인 '사랑샘'에 2023년에는 지적장애인 그룹홈인 '그루터기'에 후원을 진행하는 등 매년 연탄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주변의 이웃을 위해 후원하며 복음 전파와 선교활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연탄교회 허기복 목사는 "백사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린 지 어느덧 9년이 되었다. 재개발로 인해 사무실을 이전 해

야되는 상황이지만, 예배를 위해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한 연탄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연탄은행은 21년간 자리잡은 백사마을을 떠나 용산구 동자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9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10월 5일에는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재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연탄교회 설립 9주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탄교회

## 예성 경기지방회서 '김만수 총회장 공약' 사중복음 부흥회 시작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03회기 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사중복음 부흥회가 경기지방회(회장 김영국 목사)의 주최로 첫 삽을 떴다. 예성총회는 지난달 백운호수교회(박영수 목사)에서 열린 첫 사중복음 부흥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거운 사중복음의 열기를 체험하며 신앙의 회복을 기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성회는 부지방회장 유선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만수 총회장은 "목회자들은 사중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부흥회를 통해 성도들이 사중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호수교회 김대근 장로의 기도

와 지방회 서기 한민기 목사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특히, 경기지방회의 100여 명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선보이며 큰 은혜와 감동을 더했다고 예성 측은 전했다.

이날 주강사로 나선 성결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삼성교회 담임인 김영택 목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성직자에 의존하는 수동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사중복음의 핵심"이라며 "사중복음은 전인적 구원의 복음으로서 영혼과 생활, 육신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했다.

부흥회는 김영국 목사와 찬양팀이 함께 인도하는 찬송과 기도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기도했다고 예성 측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운호수교회 박영수 목사의 축도로 성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사중복음 부흥회는 김 총회장이 속한 경기지방회를 시작으로 국내 34개 지방회와 11개 해외 지방회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성 측은 이번 경기지방회를 시작으로 사중복음의 물결이 103회기 내내 들불처럼 퍼져나갈 기대를 본다"고 전했다.



김만수 예성 총회장. ©예성 총회

## 부산 포도원교회, 목회자 훈련과 다음세대 부흥의 장 개최

부산 포도원교회는 2024년 여름을 맞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회복과 훈련을 위한 세미나와 농어촌 및 미래자립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제3회 영성훈련원 목회자 세미나 (7월 8-9일)

포도원교회는 7월 8-9일 이틀간 교회 컨퍼런스홀과 양산 베니카야호텔에서 제3회 영성훈련원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고신영성훈련원, 고현교회, 김해중앙교회, 당진동일교회, 세계로교회가 주관했다. 강동명 목사(김해중앙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김민훈 목사(포도원교회), 정

다윗 선교사, 유현태 장로가 강사로 나섰다. 정다윗 선교사는 매주 400명의 청년을 양육하는 비법을, 유현태 장로는 10년간 4천 명을 전도한 경험을 나눴다.

◆작심삼일 농어촌교회미래자립교회 청소년 하기수련회 (7월 29-31일)

포도원교회는 7월 29-31일까지 드림센터에서 '작심삼일 농어촌교회미래자립교회 초청 청소년 하기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삶의 방향과 미래가 바뀌는 위대한 작심삼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손주는 회장(메가스터디), 임우현 목사(반개탄TV), 강은도 목사(더푸른교회), 유지혜 전도사(한성교회), 김민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DAYBEAT 밴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모든 신청자에게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이는 김영구 목사(010-2928-7119)에게 하면 된다.

◆농어촌미래자립교회 청년대학부 초청 청년 하기수련회 (8월 15-17일)

포도원교회는 8월 15-17일까지 드림센터에서 예람위십과 함께하는 '농어촌미래자립교회 청년대학부 초청 청년 하기수련회'를 연다.

이 수련회에는 전혁 목사(예람위십), 소진희 교수(고신대), 박요한 목사(프렌즈교회), 황성은 목사(오메가교회), 임우현 목사(반개탄TV), 강은도 목사(더푸른교회), 김민훈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사전 등록자에게는 등록비 전액을 현금해 주며, 문이는 이미지 전도사(010-2598-6402)에게 하면 된다.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도원교회 홈페이지(www.podow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형구 기자

**MMF 자금운용 7년 연속 수탁고 업계 1위**

# 머니마켓 ETF도 역시,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초단기채 ETF

하나 1Q 원큐머니마켓액티브

종목코드 : 479080

**MMF 수탁고 업계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기준 MMF 수탁고 1등 (금융투자협회)

**국내 최상위권 MMF 운용사**  
수탁고 기준, 18조원 규모 MMF 운용 (금융투자협회, 23년 12월 말 기준)

QR 코드  
아래 QR 코드로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하나자산운용**

\* 이 금융투자상품은 해당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 취득이후에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및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 반환 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증권업의 직무를 행함으로써 신용의 제공, 관리의 의무는 (간접)투자대상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집합투자상품에 관하여 총성이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발행을 중단의 통지시 책임집니다. \* 이 QDIE의 과외거래는 증권상장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이익(금) 5등급(상위)이며, 총보수: 연 0.050%, (이정평가: 0.007%, 집행투자: 0.039%, 수익이나: 0.009%, 사무관리보수: 0.005%) 증권거래세, 기타비용이 추가 발생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4-022179(2024.06.10 - 2025.06.09)

#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 리더는 이런 질문을 한다”

세계선교교회서 소그룹 리더 세미나 개최,  
로이스 조 선교사와 씨니 김 목사 강의

소그룹 리더 세미나가 미주 기록일보 주최로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 및 사도, 평신도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한 가운데 로이스 조(소그룹&리더십아카데미 원장)이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의 문화적 적용>을, 씨니 김 목사(장신대 교수, 선교학 박사)가 <소그룹의 소통>을 강의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로이스 조 선교사는 소그룹의 목적을 “예수 안에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소그룹의 의미, 친밀함, ‘질문으로 하는 말씀’에 대해 설명했다.

◆“누구나 가슴 속에 한 두 개의 못 박혀 있어... 소그룹,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인부들이 올림픽 스타디움을 짓다가 못에 박혀 벽에서 움푹달라지는 도마뱀을 발견했다. 밤이 되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보고 도종환 시인은 ‘그 때 그 도마뱀은 어떤 표정이었을까?’라는 글을 썼다. 주일에 가장 좋은 웃음, 가장 좋은 가방 들고 너무도 말쑥하게 오지만 여러분 소그룹에 오는 이들은 가슴에 한 두 개의 못을 박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일 수 있고, 만지 않는 배우자, 폭력적인 배우자일 수 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또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소그룹 구성원을 끈끈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소그룹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못을 빼줄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기쁨, 웃음, 힘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 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갈 소망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날 하루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 소그룹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이어서 그는 소그룹에서 소그룹원들의 내면의 문제들과 삶의 정황에 대해 살피지 않는 채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의사와 음악하시는 분이 헌신된 마음

으로 소그룹을 섬기고 계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저를 찾아 오셨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그룹 리더를 그만둬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그룹원들을 만나 보았다. 그러자 소그룹원들은 그러다. 리더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안다. 그런데 내가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너무 잘 차려진 음식, 깨끗한 집, 공부 잘하는 자녀들... 그집에 가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괴감이 들어서 가기가 싫다는 것. 제가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자식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삶의 정황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이스 조 선교사는 에드워드 홀이 정리한 ‘인간관계의 거리’를 통해 소그룹에서 말하는 친밀함의 의미를 설명했다.

“소그룹에서 친밀함은 에드워드 홀이 말한 인간의 거리를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네 가지로 나눴다. 1. 친밀한 관계 (40cm) 2. 개인적 관계 (40-120cm) 3. 비즈니스 관계(120-240cm) 4. 사회적 관계(240cm 이상)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는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이것이 소그룹에서 말하는 친밀함이다. 한국에서 소그룹 세미나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었다. 제가 소그룹원들에게 저의 아픈 부분, 쓴 뿌리, 어머니께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자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던 권사님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엄마는 형제가 많은데 저를 불러서 감자를 담그라고 하시고 그 담긴 감자를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신다며, 그분의 엄마에 대한 상처가 올라왔다. 제가 그분께, ‘권사님, 이제 힘 드시면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권사님이 ‘저도 엄마가 해준 반찬, 감자 좀 먹어 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었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소그룹원들이 너도 나도, ‘그러면 내가 반찬 해줄게.’ ‘감자 담겨줄게, 울지 마하시라’ 이분 얼굴이 환해지며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소그룹 모임을 마칠 수 있었다.”

그는, 이처럼 서로의 상처를 고백하고,



강사로 나선 씨니 김 목사(장신대 교수, 선교학 박사, 왼쪽)와 로이스 조(소그룹&리더십 아카데미 원장). ©주디 한 기자

서로 공감하며, 자신의 아픔이 온전히 수용될 때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정리한 후, ‘질문으로 하는 말씀’을 소개했다.

◆질문으로 하는 말씀 목적

“리더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성도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리더는 질문을 던진다. 말씀을 묵상하다 스스로 발견한 진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소그룹의 몫이다.”

강의에 따르면, ‘질문으로 하는 말씀’은 도입질문, 관찰질문, 해석질문, 적용질문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도입질문의 단계에서는 아색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유쾌하고 기분을 풀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예: 여러분들에게 50만 불이 있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본문의 성전 건축으로 연결한다)

이때는 성경을 몰라도 답할 수 있으면서도, 본문과 연관된 질문을 던지되, 상처가 될 수 있는 질문, 외모(예: 삭개아가 본문인 경우,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가 작아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질문(예: 사회보장 관점에서 무료 배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은 피한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창세기 2장이 본문이라면, ‘갑자기 많은 손님을 차투게 되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나요?’, ‘동물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나요?’를 제시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이다.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어떤 삶의 결단

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첫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며, 질문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1. 순번을 정하거나 지정해서 답하게 하지 않는다. 질문하고 답할 때까지 기다린다. 리더인 내가 먼저 대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2. 정답 발표가 아니라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이다. 3.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4. 엉뚱한 대답,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정정하지 않는다. 5. 잘못된 답변이라 하더라도 배려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6. 침묵하며 기다려 준다. 질문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소그룹 사례와 적용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각 참여자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소그룹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들과 그 장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표했다.

실제 소그룹 상황에서 벌어진, 비밀 유지와 성도 보호 사이의 갈등 사례, 부리더가 리더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갈등을 빚는 사례, 교회 밖 선교단체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성도가 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다른 성도에게 충고를 전했는데, 그 충고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로이스 조 선교사는 각 발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그룹의 주요 원칙들을 정리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의도의 충고라 해도, 충고를 받는 일은 힘든 일이라며, 샌드위치 요법을 강조했다.

“충고할 때 샌드위치 요법으로 해야 한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지 않는 방법이 다. 빵이 칭찬과 격려, 고기가 충고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충고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충고를 받는 일은 힘든 일이다. 상한 마음으로는 충고해서는 안된다.”

◆소통의 네 가지 단계

세 번째 강의 <소그룹의 소통>을 강의

한 씨니 김 목사는 소통의 4가지 단계-경청, 질문하기, 공감하기, 말하기에 대해 소개했다.

“소통을 위한 첫번째 단계는 경청이다. 귀로만 듣지 않고 눈, 몸짓, 자세, 표정으로 듣는다. 비언어적 신호, 반영적 경청이 필요하다. 말하기에서는 명확한 표현, 긍정적 언어 사용,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표현을 해야 한다. 리더는 말을 아껴야 한다.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소통의 4단계에 이어, LA씨티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활용했던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법)’를 소개했다.

“LA씨티 교회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진행했다. 5-6명 정도 그룹을 이루어 1시간 반-1시간 45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리더들이 간단한 기도제목을 목회자에게 나눈다. 소그룹 리더는 성경을 읽을 사람을 먼저 선정한다.소그룹 시간에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면 다른 소그룹원들은 눈을 감고 듣는다. 시편, 잠언, 서신서가 좋다. 성경교재를 갖고 할 때보다 말씀을 성도들이 들으며 집중할 때 좋은 나눔이 있었다. 3번정도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데 한 사람이 세 번 읽기도 하고, 세 사람이 돌아가며 읽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 소그룹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질의응답

씨니 김 목사의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리더를 뽑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로이스 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리더를 뽑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를 뽑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 비전에 맞는 리더를 뽑아야 할 것이다. 리더를 뽑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리더와 부리더’, ‘담임목사님과 소그룹의 리더와의 관계’이다. 담임 목사님의 교육과 가치를 알고 있고 그것을 동의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는 평신도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리더를 세울 때, 한 번 세워진 리더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한 번 세울 때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 맞는 리더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들이 리더십을 갖게 된 처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맨 처음 소그룹의 리

더로 권면을 받을 때만 해봐도 정말 엉터리였다. 새로운 리더를 세울 때는 함께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부둥켜 안고 세우는 마음의 포용력, 인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소그룹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는 질문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깎아지고 성숙되는 것이지만 맨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동질성, 공통성이 있는 사람들로 모으는 게 좋다”며, ‘부부 모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교회 안에서 쉽게 하는 것 중, 부부모임이 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위해서는 부부모임은 따로 하는 게 좋다. 60세 이상은 되어야지, 남편이나 와이프가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전 연령대에서는 어렵다. 서로 오픈하는 것을 누가 더 잘 할까? 남자분들이 훨씬 솔직하게 오픈한다. 조금만 감동이 클라되면 쉽게 자신을 오픈하면서 훨씬 진지한 대화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안 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배우자이다. 남편들이 오픈된 얘기를 하려 하면 여자분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임을 부부별로 모은다. 그런데 나눔은 여자 남자 따로 한다. 훨씬 반응이 좋고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소그룹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갈등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면 그 안에서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그룹 전체를 와해시키는 경우가 있다. 갈등 요소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리더 입장에서 반을 재조정하기 쉽지 않다. 일 년에 한 번씩 셀 개편을 하는 교회가 많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그룹의 친밀감을 갖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년 만에 친밀함을 갖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을 섞어서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소그룹의 성격은 달라진다. 성령님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좋고 나쁘고, 잘하고를 떠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자기 성장과 특성에 맞는 그룹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성장과 성품에 맞는 그룹에 보내줄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주디 한 기자

자연  
내림

구매 문의 | 1833-2655

제조원: (주)동진제약  
판매원: (주)만수모강

**MOMODAN HAIR TOTAL SOLUTION**

“두피와 모발을 더욱 생기있게 업그레이드”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을 만나 두피변화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채우세요.

- ✓ 머리가 자주 가려우신 분들
- ✓ 두피에 각질이 많으신 분
- ✓ 머리가 빨리 기름지시는 분
- ✓ 가는 모발에 술이 없으신 분
- ✓ 두피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

**모모단** 헤어토탈솔루션  
HAIR TOTAL SOLUTION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  를 검색하세요!

# 김낙환 박사 신작 시집 '서울살이 그리고 어머니' 펴내

13일 배재고 우남학사 동문홀에서 북콘서트 진행



“어떤 땀 시 한 편이 그림 한 폭과 똑같아요. 그림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른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순수한 맛의 제 시들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여운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김낙환 박사(아펜젤러기념사업회 사무총장)가 여섯 번째 시집 '서울살이 그리고 어머니'(도서출판 영상복음)를 펴냈다.

1996년 문학세계에 시 '보물상자'로 등단한 후 목회자로, 강사로 바쁜 활동 중에도 꾸준히 작시 활동을 해 온 김 박사는 지난 2023년 전라남도 주최, 한국문인협회 영광지부 주관 '제4회 다문화 인권문학상 공모전'에서 '필립핀 아내가 급상에 당선됐다. 이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 쓰는 습관을 지나게 됐다'는 김 박사의 지난 반 년 간 쓴 최신 작품들을 중심으로 시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 '서울살이'는 서울 종로에 살면서 인왕산, 북악산 둘레길, 자라길을 산책하

며 자연과 사람들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담백하게 표현한 시들을 담았다. 2부 '어머니'는 차매와 싸우다 작년 88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신 어머니를 2년간 돌보며 때론 따뜻하고, 때론 가슴 먹먹한 에피소드들을 시로 담았다. '송포역', '간월도', '수덕사에서' 등 애착이 가는 과거 시들도 몇 편 실었다.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동 배재고등학교 우남학사 동문홀에서는 북콘서트도 연다. 호은기 청주에덴교회 목사의 사회로 김낙환 원로목사(배재고)의 기도, 김낙환 시인의 인사, 공주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김진규 박사의 시평, 아펜젤러기념사업회 광명근 이사장의 축사, 미국 위스콘신 연회 정희수 감독과 미국 LA 이성주 원로목사의 영상축사, 천송옥 실장과 김낙환 시인의 시 낭송, 작자와의 대담, 이경희 원로목사(배재고)의 축복의 기도 등으로 진행된다.

배재아펜젤러중앙단 김서홍 단장 외 8명의 남성중창, 노태수 연주가의 색소폰 연주, 신은주 교수(청주에덴교회 사교)의 오카리나 독주 등도 진행된 다양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가 있는 문화 축제가 될



김낙환 박사

예정이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만난 김낙환 박사는 “평소 소나비가 내리는 것처럼 영감이 주어지면 길에서도 멈춰 서서 시를 쓰고, 기회가 되면 읊기면서 고쳐 쓴다”며 “제 시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순수한 맛이 있고, 그 속에 아름다움과 여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먹고 사는 이야기보다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기에, 어떤 면에선 형이상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이번 시들은 너무 재미있게 썼

다”며 “친구들 중에 제 글이 아주 편안하다며 시를 좋아해주는 팬들도 많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펜젤러기념사업회 광명근 이사장(전 배재학당 이사장)은 추천의 글에서 “배재학당을 졸업한 김낙환 시인의 이 작품들은 김소월, 나도향에 이어 배재학당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는 작품의 하나”라고 평했다.

김낙환 박사는 배재고, 목원대 신학부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피사피대학(M.A., D.Min)에서 수학했다. 목원대, 배재대, 한동대 등에 출강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로 섬기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아펜젤러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로 사역했다.

저서로 '청년 이승만, 그리고 당시 선교사들의 연구', '아펜젤러 행진', 시집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ok 좋아하십니까?',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 '보물 상자', '송포역, 그리움이 머물다' 등이 있다.

오는 13일 북콘서트 참석자들에게는 작가의 저서 '서울살이 그리고 어머니', '우남 이승만 신앙연구', '아펜젤러 행진'을 선물로 제공한다. 이희희 기자

## 선교칼럼

### 왜 이주민 시대의 선교인가?(1)



김영희 목사

지금 하나님은 지구를 흔들며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세계의 3분의 1이 본국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는 현대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곧 이주민(난민 포함) 선교가 이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위 K 문화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TV나 많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러브 인 코리아', '미녀들의 수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영화 '완득이' 등으로 우리는 이미 국내 이주민들에 대해 낯설지 않다. 또한 지금 해외에는 한글 보급의 확장과 한국 음식 문화가 예전과 달리 빠르게 확산되어 수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상황

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이다. 따라서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교회는 새로운 접근이 절실한 때이다.

중요한 것은 그간 이주민 선교의 거의 모든 활동들이 우리와 그들이 서로 시혜자와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우정과 신뢰를 쌓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결코 경쟁적이거나 비교나 주도권 다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의(大義)를 위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복음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이주민 선교의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사 66:18-21). 그러므로 이주민 선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삶의 활로가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앞으로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계속>

김영희 목사(KWMA 운영이사, 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서울남교회 은퇴목사)

## 안보칼럼 16 국가보훈과 국립묘지(10) 학도의용군

### “책 대신 총 들고 전선으로 달려간 어린 학도병들 기억해야”



이병희 목사

제일학도의용군 묘역을 나와서 정문 방향으로 향하면 왼편에 세 개의 작은 아치 모양의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이 보인다. 1950년 8월 포항여중 전투에서 전사하여 부근에 가매장되었던 이름을 모르는 학도병 48명의 유골을 수습하여 모신 곳이다. 뒷면에 '여기에 겨레의 영광인 한국의 무명용사가 잠 드시다'라고 새겨져 있다.

학도의용군은 1950년 6월 29일 수원에서 결성된 비상학도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전황의 악화로 대구에 집결한 학도병은 7월 19일 대한학도의용대로 개편되었다. 학도의용군은 1951년 2월 28일 학교 복귀령이 내려질 때까지 27,700명이 전투에 참가하였고, 후방 선무활동에 약 25만 명

이 참가하였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서 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1950년 8월 10월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도병이 쓴 편지의 한 부분이다. 이 학도병은 다음날 포항여중 전투에서 전사하여 부처지 못한 편지가 되었다.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는 포항여중, 안강, 형산강, 천마산전투 등에서 전사한 학도병 1,394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8월 11일 학도의용군 71명은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을 제지하기 위하여 포항여중에서 11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4차례 근접전에서 전사 48명, 행불 4명, 포로 13명, 부상 6명 등의 희생자를 냈지만,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함으로써

700여 척의 선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학도의용군의 활약은 안강, 천마산, 형산강, 장사리 등으로 이어졌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양동작전으로 개시된 영덕, 장사상륙작전은 육군본부 직할 제1유격대대장 이명흠 대위의 이름을 따서 '명부대'라 했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학도병들이 참가한 6일간의 전투에서 772명 중 129명이 전사하고 110명이 부상당했다.

학도병 최초의 전투는 1950년 7월 25일 하동 화계전투였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강진 등 17개 중학교 183명의 학생들이 순천의 국군 15연대에 자원입대하였다. 학도병들은 진주로 향하던 북한군 6사단 1천여 명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12시간의 사투 끝에 70여 명이 전사하고 실종되었다.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국립서울현충원

1950년 8월 전해중학교 207명이 자원입대하여 단기교육을 받고 현역병으로 편입되어 13명이 전사했다. 제주농고 145명은 제주도 학도돌격대를 조직하여 해병대에 입대하였다. 양동식 해병은 1950년 8월 15일에 해병4기로 자원입대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수도탈환작전, 고성, 간성, 영덕, 영월, 지리산, 도솔산 924고지에서 활약하고 을지, 화랑, 충무무공훈장과 미국 동성무공훈장까지 4개의 훈장으로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기도에 답했다.

여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군에서 간호, 취사, 세탁, 통신, 후방선무활동을 주로 했지만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강릉사범학교 여학생 31명이 제1사단에 입대하였고 강릉여중 20여 명이 제3사단과 함께 함흥까지 진격했다. 1950년 9월 여군의 모태가 된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창설되었다. 해군과 공군에도 여자학도의용군이 있었다. 해병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모집한 3천여 명의 대원 중 대다수가 학생이었고 그중에 126명이 여학생이었다. 공군에 자원입대한 42명의 여성항공병도 있었다.

우리 역사에는 의병의 전통이 있다. 6.25전쟁 당시 27,000여 명의 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로 자원 입대하여 7,000여 명이 전사했다. 정태영 장군은 6.25 직후 학도병으로 출정하여 1952년 육군소위로 현직 임관했다. 전후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제사단 포병사령관을 역임했다. 학도병 출신의 유일한 장군이며 장군 제1묘역에 묘소가 있다.

최강석 장군은 1947년 이등병으로 입

대하여 1950년 육군소위로 현직 임관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고 제8사단장, 제2군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예편했다. 그의 이름이 붙은 대대가 있을 정도로 국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벽면에 재학생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29명의 이름이 적힌 검은색 명판이 있다. 실제로는 100여 명이 전사했지만 기록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미국 버지니아 루레이 동굴 가장 깊은 곳에 명비가 세워져 있다. 에머슨의 시 '자원병의 한 소절과 이곳 출신의 제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전사자 7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국립묘지에는 이처럼 나라가 사라지는 위기 앞에서 책 대신 총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간, 미처 귀뎠지도 못하고 가라앉은 어린 학도병들의 묘비지가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들의 목숨으로 구조된 사람들이다. 최소한 이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국가정체성을 이어가야 한다.

이병희 목사(6.25역사지역연대 부대표, 6.25역사위원장)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공인인증서 심의번호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입니다. (예금저축보안번호)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까지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직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英성공회, 동성혼 성직자 제한 철폐 2025년 총회 상정할 예정”

영국 성공회 총회가 동성커플을 위한 축복예배 도입 과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투표한 가운데 북유럽주의협의회(CEEC)는 이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투표에서 영국 성공회는 동성혼을 한 성직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며 이를 위한 제안이 2025년 2월 열리는 총

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총회 토론 중 연설한 전통주의 성공회 교인들은 신뢰의 붕괴와 궁극적인 분열과 쇠퇴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은 영국 성공회 지도부가 “이 계획은 교리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이를 제기했다.

동의안은 간신히 통과됐다. 주교단 측은 찬성 22표, 반대 12표를 던졌고 성직

자 측은 찬성 99표, 반대 88표를 던졌다. 평신도 측은 찬성 95표, 반대 91표를 던졌다.

CEEC의 내셔널디렉터인 존 더넛은 “독립된 예배가 총회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성직자 동성혼을 위한 일정이 승인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그는 “나쁜 절차를 피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고,

CEEC가 위임된 조치의 부족을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랑과 신앙의 기도’ 버스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영국 성공회는 전통주의 성공회 사제들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위임된’ 감독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CEEC와 다른 전통주의 성공회 교인들은 “교구 주교가 대표단을 승인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CEEC는 독립 예배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조적 재편을 위해 전통 성공회 연합 네트워크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 성공회 지도자들은 오늘날 성공회 공동체에 속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세기 동안 전수받아 공유해 온 성경적 가르침과 교리에서 교회를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는 영국 성공회에 남기로 결심했으며 주교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 英교계 지도자들, 스타머 총리에 서한 “전환치료 금지 재고해 달라”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최근 당선된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전통 교회와 일반 기독교 관행에 대한 전환치료 금지 조치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CT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성경을 믿는 교회에 대한 ‘부당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는 ‘공공 생활에서의 종교적 문해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를 만나기를 요청하고 있다.

서한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소위 전환 치료에 대한 입법적 금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교회 지도자들은 금지 조치로 인해 원치 않는 동성애적 매력이나 성적 불쾌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목회적 대화나 기도 등 일반적인 기독교 관행이 범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스톤월은 ‘개인 기도를 포함하는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전환치료 금지(Ban Conversion Therapy) 캠페인의 성공회 의장인 제인 오진은 “부드럽고 강압적이지 않은 기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휴머니스트(Humanists)는 이 법안이 회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누군가가 잘못된 종류의 기도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놀라운 전망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새로운 금지 규정이 광범위하게 정의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해당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라며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성별에 민감한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은 총리를 만나 우려 사항을 직접 논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끝을 맺는다.

이들은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종교적 문해력 격차를 메우고 정부가 기독교인과 신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자는 회중교회 북유럽연합과 ‘그레이터 러브 선언’의 토마스 브랜던 목사, ‘친화 교회 네트워크’ 디렉터 그레이엄 니콜스 목사, 영국 성공회 대주교 협의회 위원인 이언 폴 박사, 요크 트리니티 교회의

사제인 매튜 로버츠 목사, 유럽 성공회 네트워크의 앤디 라인스 주교가 포함된다.

로버츠 박사는 “기독교는 영국의 역사와 문화에 필수적이며, 우리 사회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남아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 내 일부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새로운 정부가 영국에 대한 기독교인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고 이들을 반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니콜스 박사는 “우리는 새 노동당 정부를 기도하고 지지하고 싶지만, 전환 치료 금지에 대한 그들의 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며 “진정한 확대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할 새로운 법안은 이미 불합치지만,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과 성 및 성별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부모와 목사들에 대해 허위 비난을 퍼뜨릴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北의 러 포탄·미사일 수출 강력 규탄”

“北·이란, 대러 직접 군사 지원으로 전쟁 부추겨”  
“북러 간 관계 심화 큰 우려...中은 러 조력자”  
“韓 등 4개국 안보 협력 논의...인·태, 나토에 중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0일(현지시간)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나토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과 이란은 군수품, 무인항공기(UAV) 등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긴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 특별한 책임이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제공하는 러시아 전쟁 노력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인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허위정보를 포함한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사이버 등 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나토는 “우리는 중국이 전략적 위험 감소 논의에 참여하고 투명성을 통해 안정을 증진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규칙에 기반 반도 내 타타르인과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저항운동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약 2천 명의 아테쉬 조직원들이 러시아 및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철도 폭파, 러시아군 공격, 러시아군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혔다.

강영진 기자

성명은 또 11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4국 정상들과 “공동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 반러 우크라 무장단체, “북러 접경지 철도 파괴하겠다”

지난 5월 러 중부 철도 파괴한 아테쉬 북한 지원 무기 러군 전달 막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을 운송하는 철도를 폭파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무장단체가 북러 접경 러시아 철도도 폭파할 것으로 예고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테쉬(ATEISH)라는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지난 5일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 인근을 지나가는 러시아 철도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철도 폭파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서 러시아가 이 철도를 통해 북한의

탄약을 수송했다면서 철도 폭파로 러시아군에 북한 탄약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단체 대변인은 자신들이 폭파한 러시아 철도 구간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지만 곧 복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의 탄약 공급을 막기 위해 북러 국경 근처에서도 러시아 철도를 폭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아테쉬’라는 단체명이 ‘불꽃

이라는 뜻의 튀르키예 말이며 2022년 크림 반도 내 타타르인과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저항운동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약 2천 명의 아테쉬 조직원들이 러시아 및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철도 폭파, 러시아군 공격, 러시아군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혔다.

강영진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동화약품** SINCE 1897

# N°20 건강한 인사법

GOOD

## 목례로 인사

BAD

## 악수로 오염

일러스트: 양나영

# SAMSUNG

## Galaxy Z Fold6 | Z Flip6

Galaxy AI ✨ is here



### 역대급 강력한 AI 폴더블 폰의 탄생

사전판매 24.07.12~24.07.18

[samsung.com](https://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플렉스 모드는 75°~115°의 각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계기 7개국과 양자회담 진행

###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 확인, 경제·안보 협력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가운데, 10일(현지시간) 7개국 정상들과 탈레이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그리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자 정상회담에서 원전, 방산, 인프라, 공급망,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독일 정상회담에서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독일의 유엔사 가입 의사에 대해 환영 의사를 전달했다.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러-북 군사협력 대응 및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24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 계획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삼성-ASML R&D 센터 착공 계획 등 반도체 동맹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도 했다.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는 원전과 우주, 핵실험물,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합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워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올라프 솔트 독일 총리와 한-독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했고, 스웨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원전과 고속철도 등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

다.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는 방산과 원전 분야 협력 확대를 합의했으며, 특별히 핀란드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협력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러-북 밀착에 대한 한일 공조를 확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의 탈레이 양자회담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외교자평을 확대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진전을 이룬 하루”라고 평가했다. 또한 “원전, 방위산업, 디지털 분야서 역량을 우리 기업이 더 큰 운동장으로 진출해 뛰어다닐 수 있게 디딤돌을 보강한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했으며, 1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면서 영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과 추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번 탈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 것”이라며, “특히 원전, 반도체, 방산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무대에 올라 인사하던 모습. ©뉴시스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서 1위 차지

###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과반 지지 확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 후보의 지지도가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전국지표조사(NBS)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가 5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나경원 후보가 12%, 원희룡 후보가

10%, 윤상현 후보가 1%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없다·모름·무응답’이 54%로 높게 나타나 아직 판단을 유보한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임팩트’ 의욕이 제기된 이후에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의욕이 한 후보의 지지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8%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각각 21%와

27%의 지지율을 보여, 조사대상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경원 후보는 12%, 원희룡 후보는 7%, 윤상현 후보는 1%의 지지율을 얻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우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305명의 응답자 중 55%가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나경원 후보 12%, 원희룡 후보 10%, 윤상현 후보 1%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8%p이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응답자의 23%가 한동훈 후보를,

8%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원희룡 후보(5%)와 윤상현 후보(3%)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의 지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총 5400명과 통화를 시도해 1000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8.5%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더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국 기자

내년 입주 가능!

당신의 건강 기대수명을 늘려 드립니다

하이엔드 호텔식 시니어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과천시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과천봉담고속화도로

서초구

백운호수

강남구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백운호수역(가칭) 신설 예정

청계C

입주부터 식사와 문화생활까지 한번에, 호텔형 생활 서비스

- 액티비티존 |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 힐링존 | 사우나, 바다케어센터, 메디컬센터
- 리빙존 | 레스토랑, 올데이 클래스, 컨시어지 데스크
- 커뮤니티존 | 커뮤니티 광장, 다목적홀, 라이브러리, 맨즈클럽

월드컵 경기장 2개 규모의 약 3,500여평 초대형 커뮤니티

- 365일 식사서비스 | 전문영양사가 제공하는 1일 3식 맞춤형 건강식단
- 하우스키핑 서비스 | 주 1-2회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서비스
- 메디컬케어 서비스 | 24시간 간호사 상주 및 건강검진 연 1회
- 올데이 클래스 | 음악, 체육, 문화, 교양 등 다양한 문화강좌 클래스

총 536세대 **1577-5052**

##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연임, 국민 과반이 반대

###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반대 우세,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다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1%로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으며, ‘모름·무응답’은 14%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의 74%와 중도층의 52%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라는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65%의 높은 반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찬성하는 비율은 진보층에서 5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8%,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46%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연임 반대’ 비율이 ‘연임 찬성’ 비율보다 높거나 같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정계 한 관계자는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총 5400명과 통화를 시도해 1000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8.5%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더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국 기자

## 김두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 “용기 있는 결단” 격려받고 “의미 있는 성과” 당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은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 후보는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경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환담에서 김 후보는 “지난 410 총선에서 패배해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김 후보 측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후보 측 제공

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또 “이재명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민주당을 구하는 큰일이라 계산 없이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가 5인5색이 아니라 5

인색이 될 것 같아 다양성이 실종된 당의 현주소를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한다”고 지적하며 현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을 격정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무리했다. 박용국 기자

#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논의, '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 예방 및 갈등 해소 방안 모색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요구 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직권조사와 의학적 감정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고, 120일 이내에 조정 중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감정과 조정절차가 의료계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해왔고, 의료계는 과실 인정 여부를 불문한 조정 유도 경향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 대응과, 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사고 경위 설명과 위로·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감정과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도 세밀하게 논의되었다. 감정 기구 구성에 무작위 배정

방식을 도입하고, 감정 쟁점 선정 시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감정서에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소수의견 기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책이 논의되었다. 특히,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위해 '환자 대변인제' 신설이 검토되었다. 이는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제도다.

의학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으로 확대하고, 감정위원단 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조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조정 협의수를 늘리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안도 제시됐다. 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별도 기구 설치와 감정 및 조정 결과의 공개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안전을 구체화하고,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관련 입법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정부의 2028년까지 필수요구 분야 10조원 이상 투자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향후 특위는 필수요구 투자 우선순위 및 원칙을 정립하고, 행위 중심 수가 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가치기반 중심의 대안형 지불제도 도입 등 보상 관련 개혁방안 논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채상병 사건 수사팀 판단 전적 신뢰”

### 대통령실 외압 의혹 부인...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는 거부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 청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히며, 야권이 제기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과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 협의 의혹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며, 정치적 고려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발표일과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핀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채상병 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인 부분”으로 제기 여부가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다.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지역 편중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참여 위원 11명 중 대구경북 외 다른 지역 출신 위원이 있었는지 질의했으나, 김 경북청장

은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는 지난 5일 채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9명 중 6명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박용국 기자



김철문(왼쪽)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뉴스시스

## ‘이승만 국민 방미 70주년 기념’ 견미단, 미국 역사탐방

### 7월 14~28일 하와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방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 국민 방미 70주년을 기념해 청년 50명이 '견미단'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역사탐방에 나선다.

지난 1882년 조미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한 조선을 이듬해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했다. 당시 대표단의 공식 이름은 '보빙사절단'이었는데,

그 또 다른 이름이 '견미단'이었다. 견미단의 방미를 계기로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년 견미단의 미국 역사탐방 발대식이 최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됐다. 청년들은 단장인 조평세 박사(1776 연구소 대표) 및 부단장 손영광 교수(바른청년연합 대표)와 함께 미국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 탐방지인 하와이에서는 한인 기독교회, 오아후 공동묘지, 호놀룰루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진주만 기념공원, 애리조나호와 미주리호, 칼리히 조등학교(한인기독교원 터), 마우나리 요양원 등을 방문한다.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하버드대학교, 메이플라워호, 플리머스, 필그림파더스 기념탑을 둘러보고, 뉴욕에서는 컬럼비아대학교, 맨해튼 영웅들의 골짜기를, 아울러 프린스턴에서는 프린스턴대학교 등을 견학한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이태산 묘지, 크라이스트처치, 리버티벨, 인디펜던스홀(독립기념관), 리틀시어터, 에나폴리스에서는 메달랜드 주의회, 워싱턴DC. 링컨 메모리얼, 한국전쟁기념공원, 아메리칸대학교 이승만 빛꽃나무 등을 찾아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견미단은 1776년 미국의 건국 정신을 배우고, 이것이 어떻게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최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견미단 미국 역사탐방 발대식이 열렸다. ©견미단

## 정부·지자체,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 총력

###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바가지 요금 근절 등 민생경제 안정 도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등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경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

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 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난해 말 7172개소에서 올해 말 1만개소 이상 확대해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역동적인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 공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및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 서비스 제공 시 특별교부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나래 기자

##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아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민약품 광고심의를뢰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 나이지리아 플라토주, 무장단체 테러로 70개 교회 폐쇄

나이지리아 중부 플라토 주에서 무장 단체들의 테러로 인해, 한 교단이 70개 교회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방그리스도교회(COCIN)의 회장인 아모스 모조 목사는 크리스천데일리인 터내셔널(CDD) 및 모닝스타뉴스에 플라토 주와 보코스 카운티에 있는 70개 교회가 지난 2년간 예배를 중단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3년 12월에 발생한 크리스마스 공격이 COCIN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모조 목사는 "우리 교인들과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었으며, 많은 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발이 묶였지만 도전에 맞서야 했고, 비극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소에 있는 실형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망구 지역이 테러 공격으로 인해, 최소 40개의 COCIN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모조는 "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실형인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의 외곽의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 이동하며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보코스 지역에서 교단이 30여 개의 회원 교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모조는 "이 지역의 모든 예배당이 테러 범들에 의해 불타다"며 "이곳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지역사회 밖의 캠프에서 살고 있다. 농부인 그들 대부분은 지금도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용감하게 농장으로 돌아가 공동체 그룹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COCIN 교회들은 보코 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등의 공격으로 인해 복원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조는 "보코 하람이 수년 전에 마을을 점령했고, 지금도 그곳에 있다. 그래서 보코 하람 테러범들이 점령한 이 언덕은 리만카라와 그위자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며 "이 테러범들은 언덕에서 내려와 공동체를 습격한 다음 언덕으로 후퇴한



나이지리아 중부 플라토주. ©위키미디어

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그위자 마을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다.

모조는 최근 납치 사건이 너무 많아서

COCIN 교단이 목사의 몸값을 모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에는 보르노 주에서 폴 무사 목사와 그의 아내가 보코 하람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었다. 이 테러범들은 지난 6월 셋째 주에 일주일 내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부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모조는 "테러범들이 위협을 가한 지 일주일도 넘었고, 납치범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해 이제 최후통첩은 만료되었다"며 "무사 목사와 그의 아내를 납치한 자들에게 그들을 석방할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는 테러 공격이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까지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잠파라 주에서

납치된 로마 가톨릭 신부 마가 솔레이만이 최근 석방되었다고 소코토 교구가 밝혔다. 그러나 그와 교회 관계자들은 그를 납치한 단체나 석방 조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WWL)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앙으로 인해 4118명이 살해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 납치 건수도 3300건으로 세계 최다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교회와 병원, 학교, 묘지 등 기독교 건축물에 대한 공격이 750건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김유진 기자

## 아프리카 수단, 사상 최악의 식량위기 직면

아프리카 국가 수단이 1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국제 복음주의 자선 단체인 '월드비전(World Vision)'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개미집을 두고 서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월드비전 미국 지부 회장이자 CEO인 에드거 샌도발은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수단이 내전과 기근 위기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IPC)에 따르면, 수단의 2560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850만 명이 긴급한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IPC는 또한 수단의 다르푸르와 쿠르두판 등 14개 지역의 주민과 난민들이 기근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4월에 시작된 수단군과 정부 지원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간의 내전이 기근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월드비전은 지난달 수단이 3년 연속 강수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해 수확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선 단체는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최근 샌도발은 차드-수단 국경을 방문해 수단을 탈출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엄마와 아이들에게서 내가 본 어떤 것보다도



수단의 아동들이 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 속에서 영양실조와 기아에 처해 있다. ©월드비전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격렬한 내전으로 가족을 잃은 8살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두 이모가 그녀가 탈출하도록 도왔지만, 소녀는 부모님의 시신을 목격했다. 샌도발은 그 소녀의 이야기가 수단의 어린이들이 겪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월드비전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20만 명 이상에게 식량 및 현금 지원, 건강 및 영양 서비스, 물과 위생 및 위생 대책 등을 제공했다. 이 구호 단체는 수단 외에도 차드, 남수단,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샌도발에 따르면, 유엔의 수단 대응 계획에 27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17.4%의 자금 지원만을 받았다. 지난 4월, 유엔은 대응 계획의 자금 조달이 약 6%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김유진 기자

심각한 식량 불안과 안전한 식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했다. 2023년 4월 내전이 격화된 이후 3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5세 이하 어린이 약 400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73만 명이 "임박한 사망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월드비전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20만 명 이상에게 식량 및 현금 지원, 건강 및 영양 서비스, 물과 위생 및 위생 대책 등을 제공했다. 이 구호 단체는 수단 외에도 차드, 남수단,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샌도발에 따르면, 유엔의 수단 대응 계획에 27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17.4%의 자금 지원만을 받았다. 지난 4월, 유엔은 대응 계획의 자금 조달이 약 6%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김유진 기자

## 바이든, 경합주 흑인교회 주일예배서 연설... 지지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펜실베이니아주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를 방문해 자신을 향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바이든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고 묘사하며, 민주당은 "법의 정당"이라고 치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소재 '마운트 에어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Mount Airy Church of God in Christ)'에서 연설하며 "우리가 함께 뭉치면, 미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다"라고 발언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평생 동안 존엄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를 완전히 실현시켜 본 적은 없지만, 완전히 포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학자금 대출 부채 해소를 포함한 자신의 공적을 강조하며, 그의 행정부가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실업률을 가장 낮추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한다. 미국에 존엄성과 희망을 되찾아야 하며, 다시 미국을 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교회 방문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그의 건강 상태 및 인지 능력 등을 이유로 사퇴 여

론이 커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마운트 에어리 교회의 J. 루이스 펠튼 주교는 바이든을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간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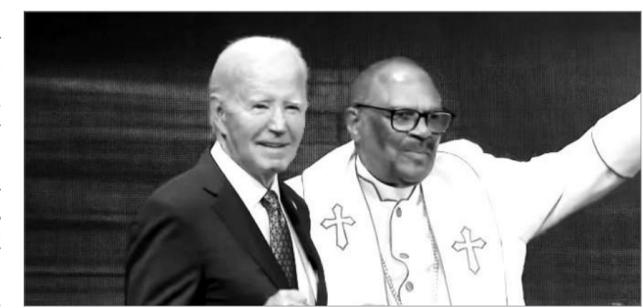
펠튼 주교는 "아버지, 노인의 차에 붙어 있는 스티커인 '나는 느릴지 몰라도 당신 앞에 있다'를 기억합니다"라며 "우리 대통령을 사용하소서. 그의 경험을 활용하소서. 그의 장애를 쓰시고 그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다.

펠튼은 이전에도 "왜 사람들이 바이든이 특정 시간에 말을 대고 말을 잘 못하는 상태를 문제로 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사람은 유창하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의 거짓말에는 도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교회 연설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 한다고 확고히 믿는다"면서 "이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혼한 것은 아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방문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여기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민주당 하원원들 사이의 사적인 통화에서 여러 의원들이 바이든의 재선 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의 사퇴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제리 나들러(뉴욕), 애덤 스미스(워싱턴),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조 모렐(뉴욕)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 3월, 바이든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했으며, 최근에도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했다. 김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에어리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어니스트 C. 모리스 원로목사. ©워싱턴포스트 유튜브 캡처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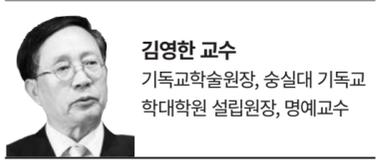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자원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유치 시설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 캠코 신비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는 나사렛 예수(2)



**김영한 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명예교수

## 역사적 예수 논구 시리즈

### 2. 요한복음의 의도: 예수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 - 금요일(유월절 전 날) 심문과 처형

공관복음 연대기의 어려움은 요한복음의 연대기에 의하면 해결된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월절 축제는 금요일 저녁에서 시작되어 토요일 저녁에 마치고 때문에 마가의 보도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유월절 축제 전에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심문과 십자가 처형은 유월절 축제 전인 금요일 저녁 이전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서 유대인 축제일에 심문과 십자가 처형이 허용될 수 있었는가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요한은 목요일 이루어진 최후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묘사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 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요 18:28). 관정(官廷)이란 빌라도의 총독 관저(官邸)를 말한다. 예수에 대한 심문과 처형이 집행된 금요일은 유월절 축제 전날이 유월절 축제일이 아니었다.

요한이 언급하는 유월절과 관련한 빌라도의 다음 말도 예수 심문과 처형이 유월절 전 날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

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요 18:39). 요한은 이어서 예수를 석방하려는 빌라도(요 19:4a, 요 19:6b)와 그의 처형 요청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하속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심문과정(요 18:39-40)을 제시해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강경한 요청(요 19:15)에 굴복하여(요 19:16)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의 연대기에 의하면 예수는 유월절 전 날 십자가에 못박혀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을 아시고"(요 19:28a)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요 19:30a) 하고 영혼이 돌아가셨다(요 19:30b). 요한은 이 날이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요 19:14a).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요 19:31a).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식일이 유월절 절기일이다(요 18:28; 요 19:14).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유월절 전 날(준비일)에 예수의 심문과 판결, 처형을 하였다(요 19:30). 유월절 축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 거행되었다. 심문과 판결, 처형이 실시된 금요일은 축제 전 날이 축제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요 19:31). 예수는 금요일에 무덤에 묻혔고(요 19:42)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요한복음의 연대기에 의하면 예수는 참된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 36)으로서 유월절 양들이 성전에서 도살되는 시간에 처형되었다(요 19:31). 요한복음의 연대기는 신학적 연대기라고 하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연대기가 공관복

음서의 연대기보다 역사적으로 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축제일에는 심문과 처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3. 조베르의 해결책: 희브리 『희년서』 달력 - 화요일 저녁 유월절 식사,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 체포, 금요일 십자가 처형

프랑스여성 신학자 아니 조베르(Annie Jaubert)는 1953년 이래로 그의 논문 "최후만찬의 날짜"(La date de la dernière Cène)과 저서 "최후만찬의 날짜"(La date de la Cène)에서 두 연대기를 화해시키려는 논제를 발전시켰다. 그녀는 새로운 연대기로서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제사장들이 사용한 희브리 '희년서'(Buch der Jubiläen) 달력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달력에 의하면 해마다 예전적 축제는 늘 같은 요일에 거행하게 되는데 유월절의 경우 니산달 15일은 늘 수요일이다. 이는 일후 유월절 식사는 화요일 저녁에 이루어진다. 조베르에 의하면 예수는 유월절을 화요일 저녁에 지나셨으며 수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체포되었다고 말한다. 이 달력에 따르면 그녀는 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본다. 공관복음이 전하는대로 예수는 실제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또한 요한복음이 전하는대로 자신들의 달력을 준수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 심문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축제 당일인 아닌 축제 전야에 처형되었다. 조베르의 해결책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날짜 계산이 서로 다른 것은 각기 다른 달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베르 해결책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전승된 연대기가 일연의 사건들(예수의 심문, 빌라도에 넘겨짐, 빌라도 부인의 꿈, 빌라도에게 되돌

아 음, 채찍질, 십자가형 선고, 형 집행 등)을 몇시간 안에 모두 수행되도록 하는 어려움을 주목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 어려움에 대하여 조베르는 수요일로 넘어가는 밤에서 금요일 아침에 이르는 시간 범위를 제시한다. 빌라도가 주저하는 가운데 십자가 형은 금요일까지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주로 쿨란 공동체에서 유포되었던 달력을 예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을가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조베르는 희년서 달력이 쿨란과 예세네파에만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유월절 축제 연대를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수는 축제가 있을 때 성전에 가셨는데 요한복음이 전해주시듯이 주로 유대교의 축제 달력에 따랐다.

### 4. 존 마이어의 제안: 특별한 종류의 최후만찬, 예수 자신이 유월절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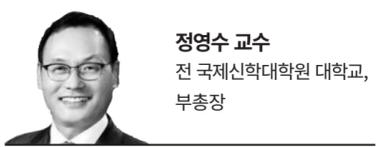
존 마이어(John P. Meier)는 '변두리 유대인'(A Marginal Jew) 제1권 끝에 예수의 생애 연대기에 관하여 방대한 연구를 제시했다. 그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연대기 사이에 전체 상황에 근거해서 요한연대기를 지지한다. 유대 당국자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심문할 때 아직도 유월절 음식을 듣지 않았다. 이들은 예전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십자가 형이 축제일이 아니라 축제 하루 전에 시행되었다고 주장한 요한의 기록에도 동의한다. 이 사실은 예수가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이 도살된 시간에 벌세했다는 것을 요한의 기록이 올바르게 해석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존 마이어도 공관복음이 유월절 식사에 관해 말한 근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 마가는 최후 만찬에 대한 본래 보고에서 유

월절에 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이어는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공관복음도 유월절 식사에 관하여 조금씩이지만 다루고 있다고 다음같이 피력한다. "전체 요한의 전통은. 식사의 비 유월절 성격에 대한 공관복음의 전통과 온전히 일치한다." 누가복음도 유월절 식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눅 22:15-16). 마이어는 이에 대하여 다음같이 해석한다. 예수는 다투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다. 그는 더 이상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리하여 그는 제자들을 특별한 종류의 최후 만찬으로 초대하셨다. 이 만찬은 자신의 작별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것이 예수가 제자들과 가진 유월절 식사였다. 그는 식사 동안에 자신을 참된 양으로서 제자들에게 선사하셨다. 예수께서 유월절 축제 하루 전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이 도살되는 시각에 돌아가셨다.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참된 유월절 어린양으로 알게되었고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존 마이어는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울의 성찬론에서 발견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전 5:7). 마이어에 의하면 예수가 바로 유월절 양이며, 예수의 최후만찬이란 바로 유월절이다. 이러한 마이어의 최후만찬 해석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최후만찬 이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좋은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교회를 살리는 길: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신학적 안목 I



**정영수 교수**  
전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인구 감소와 무신론자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교회를 흔들어놓은 가짜 복음 있는데, 실상은 성경의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신학의 변질이 자리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달에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종교개혁 오백주년 기념행사 (2017년)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럽 곳곳에서 문단은 교회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네델란드와 독일을 비롯해서 그 주변 여러 나라에서 무신론 사상이 압도하고 있고, 사회의 세속화가 극

에 달하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 ◆개혁신학이 사라지자, 교회가 문을 닫다

잉글랜드에서 박해를 피해 도버 해협을 건너갔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네델란드와 벨기에 등 저지대 지방에 살면서 고된 삶을 살았지만, 신앙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쳤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올리는 참된 교회를 세우나갔다. 잉글랜드에서 파난 길에 올라 영어성경 번역에 앞장섰던 윌리엄 틴데일은 안트워프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저술과 성경 번역을 하던 중에 1536년 화형당했다. 그런 종교개혁 운동에 영향을 입은 귀도 드 브레는 푸르네에서 개혁교회를 세웠고, "벨직 신앙 고백서"(1561)를 작성하여 과격한 반역자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567년부터 '80년 전쟁'의 첫 전투가 벌어졌던 발렌시엔이 점령당할 때 드 브레도 체포되어 공개적으로 순교했다.



이처럼 네델란드 주변 저지대 지방에는 순교의 피가 흘렀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윌리엄 에인즈는 네델란드 라이든과 홀랜드 지방에서 신학 교수로서 있으면서 개혁주의 정통신학에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다. 네델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자, 개혁주의 교회를 국교로 결정했다. 그 후로 지난 사 백년 동안 개혁교회는 네델란드와 저지대 지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켰다. 세계 식민지

쟁탈과 해외 무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네델란드에서는 걸출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가 방대한 정통 신학의 교과서를 펴냈고, 전세계 교회에 참된 복음의 체계를 깨우쳐 줄 수 있었다.

한결을 더 나아가,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카이퍼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델란드 수상이 되어 인본주의 혁명의 물결을 막았다. 카이퍼는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세웠고, 모든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격려했다. 이처럼, 약 4백 여년 동안 네델란드에서는 청교도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되었고, 자녀 교육에서도 교회가 중심에 있었다.

이제는 바로 그 네델란드 교회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지난 날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다. 자유대학교에서 기독교 신학부는 종교학의 일부가 되었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관심밖

에 내몰려 있다. 네델란드는 동성애와 마약과 성매매를 공적으로 허용하더니,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말았을까? 2023년 공식적인 종교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네델란드인 중에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되었다. 전체 국민들 중에서 12%가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암스테르담 중앙 기차역 근처에 있는 칼빈주의 교회는 음악 연습실로 사용되고 있고, 각 지역 교회들도 상황은 거의 비슷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과 개혁신학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나 제도가 오래 동안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진다. 어느 국가나 개인이나 우상숭배에 빠진 후에는 가치의 혼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 <계속>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sup>®</sup>쿨다운정

30정 (봉)

30정

광고심의필: 2022 - 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 존 웨슬리 생가 탐방 소감

### 신성욱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존 웨슬리의 채플(John Wesley Chapel)을 방문했다. 그가 사역했던 교회와 기념관과 무덤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오다 보니 생가 속 방문은 불가했다.

작년 이맘때 18명의 팀을 인솔해서 왔을 때는 생가를 둘러볼 수 있었다. 그때 보았던 것들 중에 잊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방석이였다. 존 웨슬리가 잠들곤 했던 침대가 있는 방안에는 성경책이 얹혀있는 작은 책상 하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방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릎을 꿇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웨슬리 채플에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한 바람에 그의 생가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무엇보다 감리교 목회자 세 분에게 웨슬리의 생가 방문은 남달리 의미 있는 기회였을 것이기에 나 또한 아쉬움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함께 탐방에 동참 중인 감리교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유기성 목사님은 웨슬리가 임종하기 전까지 11년 4개월을 살다 가신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한 아쉬움을 폐복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다.

“아쉬운 것은 존 웨슬리의 마지막 생애 11년 4개월을 지낸 웨슬리의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이 늦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집 안을 보았으면 했던 것은 빌리 그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1940년 신학생 시절, 교수님의 인솔로 영국의 종교개혁 유적지 탐방을 왔었다가 존 웨슬리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웨슬리의 침실의 카펫에 두 개의 움푹 패인 자국을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아 그 기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Do it again, Lord. Do it again!’이라고 기도하였다는 일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웨슬리의 집 바깥 뜰에서 ‘주님, 존 웨슬리와 윌리엄 부스, 빌리 그래함에게 역사하신 일을 지금 저에게 다시 행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하러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존 웨슬리보다 더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야 하며, 웨슬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존 웨슬리는 지금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회를 보면서, 아니 한국의 감리교회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이제 남은 한 주 동안의 영국에서의 여정 중에 제가 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작년에 생가를 방문했을 때 보니 웨슬리의 침실엔 카펫이 아니라 나무가 깔려 있었다. 이전엔 카펫이 깔렸다가 너무 낡아서 걷어치워 버린 후 바닥에 나무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부

터 카펫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거기 남아 있는 건 두 무릎 자국이 나 있는 카펫이 아니라 방석이였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던 존 웨슬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웨슬리는 말을 타고 40만km를 다녔으며,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한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가 무릎에 깔고 기도했던 방석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그 방석은 웨슬리가 기도했을 당시 그가 갖고 있던 마음의 무게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지했을 것이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쉬절망하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활기차게 잘 지행해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다.

웨슬리는 내가 방문했던 생가 자기 방에서

1791년 3월 2일, 87세의 일기로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내뱉으면서 세상을 떠났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 웨슬리는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 온 가족을 모았다. 그는 마지막 60초간 자리에 앉아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 다시 힘주어 말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그는 지금 그토록 사모했던 천국에서 영원 안식 중에 있다. 남은 건 후배들이 우리의 몫이다. 위대한 신앙적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기 위해선 부단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영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이후 더욱 기도에 전념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 진짜 꿈의 대가(大家), 요셉

### 박진호 목사

엠펙스커비우즈한인교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사를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마 2:21-23)

흔히 야곱의 총애를 받던 아들 요셉을 꿈꾸는 자로 묘사하지만 진짜 꿈의 대가는 따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고, 위험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까지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먼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꿇고자 하였으나 꿈에 나타나 천사로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성령으로 임태된 자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헤롯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자 꿈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현몽을 꾸었습니다.

본문에선 헤롯에 이어 왕이 된 아켈라오가 더 잔인하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더니 꿈에 지시

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두 번만 꾸었지만, 마태복음의 요셉은 그 감질 네 번이나 꾸었습니다. 그야말로 꿈꾸는 자의 진짜 대표입니다.

또 첫째 요셉 꿈의 목시적인 상징 대신에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네 번 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통상 사용하는 언어로 전해 들었습니다.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지시대로 따르지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을 본문은 어떻게 설명할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함”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했던 그대로 역사를 진행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소년 예수를 사단의 마수에서 건져서 청년 랍비로 만드시려는 뜻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불쌍한 인간을 이제 곧 구원하실 것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만 시행하시고 또 그것으로 충분했던 영단번의 구속계획이었습니다. 요셉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 모두를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되었습니다. 목시적 꿈 같은 모호한 계시로는 요셉이 자칫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이뤄질 첫 요셉의 꿈과는 달리 압박한 일들인지라 정확하게 가르쳐주어야

만 했습니다. 애매한 상징으로 계시할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 임신했을 때는 그 아기가 바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온전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세 번의 꿈도 생명을 앗아갈 당장의 위험에서 구주를 보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성경에 제법 많은 꿈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부 해몽이 필요했던 반면에 그의 네 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전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그에게만 그렇게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로 구체적 지시를 직접 듣게 해서 반드시 그대로 따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그대로 요셉은 실제로 꿈대로 행했던 것이며 그 모두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이 네 꿈은 후대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은 당연히 그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뿐입니다. 이 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 마리아의 고백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만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정 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호사카나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비 없는 사생아를 낳았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결정적 증인은 마리아보다 요셉입니다. 오직 그가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따라 진실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요셉이 당시 유대 관습을 아기고 약혼 기간 내에 혼전인신을 시켰거나, 마리아가 흑사라도 부정을 저질렀다면 감히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나서서 어떤 언급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을 철저히 신봉하고 실천하는 유대인으로서 천사가 현몽했다는 이야기를 결코 지어낼 수 없습니다. 없던 일을 네 번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첫 번째 현몽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울림으로 들에 맞아 죽어야 할 혼전 부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절대 지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인격이 고매했고 또 꿈에 천사의 계시를 받았어도 한번 만으로는 약혼녀 마리아의 성령 임태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위험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꿈, 다시 헤롯대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꿈, 예루살렘보다 나사렛이 더 안전하다는 꿈을 거꾸 더 꾸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정녀 탄생의 꿈의 진실성을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확실히 보장해준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입니다. 아젠 요셉으로선 어느 누구에게나 뜻밖이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부부로 함께 살아가며 마리아가 현숙하고 신실해 거짓말 할 사람이 절대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아기 예수가 자라면서 보여주는 비정상에 자주 놀랐을 것입니다. 꿈의 진실성을 의심할 여지는 점점 없어져 갔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꿈대로 현실이 진행되어 갔으니 그 모든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시절 즉,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고 있을 때는 이미 주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은 당대 신자들에게 영원한 진리로, 또 주님의 여러 이적들은 당대 사람에게 역사적 진실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과 예수님의 생전의 행적을 거 짓으로 기록했다가는 동시대인들이 금방 눈치 챌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 동시대와 후대 인간들의 열도당도 없는 반발과 비난까지 다 감안하시고 구체적인 꿈을 네 번이나 꾸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당신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꼭 변증해야만 할 정도로 연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자더러 믿음의 근거가 얼마나 확실하며 또 당신의 모든 역사에 놀라고도 신비한 은혜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만 믿음도 함께 견고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신자 쪽의 의지적 결단이나 신념이 아니라 범사를 그분 중심으로 헤아릴 줄 아는 영적 분별력으로써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깃털처럼 날아가는 비행기



서병채 목사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가끔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비행기를 타게 된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좀 힘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볍게 날아가는 것을 느낀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면 마치 구름 위를 가볍게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무게가 가볍나 무겁냐를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다. 가끔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들어있곤 한다.

그런데 무게는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컵에 물이 반쯤 찼을 때, "벌써 반이 찼네"와 "아직

반밖에 안 찼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출발을 좌우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현실은 변화가 없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비행기의 현실은 얼마나 무겁겠는가. 300명이 탔다면? 또한 여행가방들의 무게, 또한 비행기 자체의 무게도 있을 것이다. 지상에 서는 영급영급 기어가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륙만 하면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가볍게 날아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달리는 속도, 공기와 양력의 힘에 의해 그렇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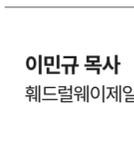
비행기가 그렇게 떠서 날아가는 원리를 인터넷 사전에 보니, 날개의 단면은 아래 면은 대체로 평평한 반면, 뒷면은 약간의 곡면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공기가 이와 같은 날개를 따라 흐를 때, 뒷면의 흐름속도가 앞면보다 빨라지므로, 앞면에 작용하는 힘이 뒷면보

다 상대적으로 커져서 결국 위로 떠받치는 힘, 즉 양력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아주 자세하는 이해 안되지만 어쨌든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우리 인생에 비유해본다면, 분명히 엄청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사실 그 무게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끄는 거리가 짧아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고 그 짐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는가?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방법은 내 자신이 관점을 바꾸는 것도 그 하나라고 본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지나간 것은 과거이기에 다시 수정하기가 힘들다. 잘못된 것도 있다. 실수한 것도 당연히 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 현재 삶에 지장을 준다면 좀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비록 무겁지만 가볍게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훌훌 털고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민규 목사  
웨드렐웨이제일장로교회

다윗이 쓴 시중 가장 유명한 시는 시편 23 편입니다.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넘치는 잔은 늘 우리에게 풍요와 만족을 줍니다. 반면 70년대 스타 가수였던

던 남진의 곡 중 '빈 잔'이란 곡이 있습니다. 떠난 님을 향한 빈 가슴에 눈물로 잔을 채운다는 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빈 잔을 채울 것이 없어서, 알코올로 채웁니다. 억지로라도 무언가로 채운다는 것은, 그곳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잔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워져 있다가 가깝게 손에 잡히는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머리에 부으신 흘러넘치는 기름 즉,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빈 곳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빈 곳을 채우시며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체에 초청받은 예수님이 마주한 것은 비어있는 포도주 돌항아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곳을 물로 채우라 하시고, 순종하자 빈 돌항아리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채워졌습니다.

시편 81편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비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의 혼인잔체에서 빈 돌항아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우시면 극상품의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전에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채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얼마 전 레이니어 마운틴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물이 많이 없어서 마른 돌덩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물속에서 죽은 나무 잔해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니 많은 눈들이 녹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으니, 저 많은 눈들이 녹아내리면 하루에 물이 가득 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햇빛이 우리 얼린 마음을 녹이고, 부으실 때 우리 삶의 하루에 은혜가 넘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社說

## ‘탈북민의 날’이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오는 14일은 국가기념일인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자유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뜻에서 정부가 이날을 정했다.

통일부의 2024년 3월 기준 탈북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민은 총 3만4121명이다. 1990년대 초반에 연간 수십 명에 불과했던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계기가 있다. 북한이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는 동안 당국의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수많은 북한 주민이 중국 등으로 이동하게 된 거다. 오로지 생존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지난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집계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 발표된 누적 탈북민 숫자는 1천명을 밀도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 들어 1000명대에 진입한 뒤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정일이 집권할 당시엔 탈북하다 단속에 걸려도 수용소에 구금했다가 곧바로 풀려나 다시 탈북을 기도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그만큼 통제가 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탈북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간주해 고문 등 잔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호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을 잇따라 제정했다. 외부 영상물이나 노래, 남한 말투 등을 따라 하거나 주변에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견제 법의 명칭은 다르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체제에서 탈북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선택이 되고 말았다.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완전히 봉쇄된 후 중국으로 단순 이동하는 북한 주민의 수는 급감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경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중국 내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현실에서도 자유와 생존을 위한 탈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에게 그토록 모진 형벌을 가하고 중국 내에 숨어 있다 공간에 적발돼 강제 복송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도 이들이 탈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한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차 북한자유주간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초대된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것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가족 9명을 목숨에 태우고 탈북한 김이혁 씨는 "북한 외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여전히 일가족을 데리고 북한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며 "북

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유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탈북 후 국내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씨도 북한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 김일성대학을 나온 자신을 바꾼 것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었다"고 증언했다.

탈북민이 주축이 된 북한 인권단체들은 최근 대북 전단살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통일부와 21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전단지금지법'이 통과된 후 족쇄에 묶였던 대북 전단살포를 한계가 위원으로 판단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면서 이 문제는 '남남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이 반발해도 북한 주민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전단살포를 중단해서 안 된다는 옹호론과 북한을 자극해 괜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맞선 상황이다. 그렇지만 외부 정보에 의해 속아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고 탈북을 실행에 옮긴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무탈하게 살아온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처지를 감안할 때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것에 감사하며 국민의 일원이 된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엔 탈북민에 대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탈북 대학생을 "변절자 xx"라며 폭언을 퍼붓고,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들 모두 국회의원이란 사실에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탈북민을 대하는 비합리적 시각을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표출하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란 현실이 망연자실할 뿐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에서 살던 탈북해 한국으로 오든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기본법 상식조차 모르는 이들을 대표로 뽑은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는 이런 수준 낮은 국회의원을 꾸짖어야 할 것이다. 정신 차리도록 주의 주고 고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내에 정착한 상당수의 탈북민이 중국에서 숨어지내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한다. 이런 형제자매를 향해 감히 "변절자", 혹은 "북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지 않겠나.

정부가 '탈북민의 날'을 제정한 건 그동안 시혜와 지원의 대상으로 여긴 북한이탈주민을 헌법상 국민일 뿐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과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됐음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일시대 북한선교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능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작년 입국 외국인 48만 명 전년비 16.2% ↑ ... 3명 중 1명 “취업 때문”

### 통계청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발표 외국인, 2년 연속 입국>출국...입국 16.2% 증가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이동자는 12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1000명(13.5%) 증가했다. 국제이동자는 입출국한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통계 지표로, 체류기간을 90일을 초과한 이동을 뜻한다.

같은 기간 입국자는 6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2000명(15.2%) 늘었다. 출국자는 57만7000명, 전년 대비 5만 9000명(11.4%) 증가했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은 전년보다 3만3000명 늘어 12만 1000명 순유입됐다. 국제순이동은 지난 2022년 순유입으로 전환 후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내국인은 3년 연속 입국보다 출국하는

인구가 많았다. 내국인 순이동은 3만9000명 순유출됐는데, 전년 대비로는 순유출이 4만1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입국은 2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13.2%) 늘었고, 출국은 25만8000명으로 1만5000명(-5.6%) 감소했다.

외국인은 2년 연속 출국보다 입국이 많았는데, 순이동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외국인 순유입은 전년보다 8000명 감소한 16만1000명이다.

외국인 입국자는 48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7000명(16.2%) 증가했고, 출국자는 31만9000명으로 7만5000명(30.5%)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로 출국자의 증가 폭이 컸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외국인

의 순유입의 경우, 입국과 출국 모두 늘었다. 입국은 재외동포 취업이나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국의 경우, 지난 2022년 입국자가 늘어난 이후 지난해 자진 출국이나 불법체류자 특별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내국인의 국제순이동을 보면 20대가 2만2000명 순유출됐고, 10세 미만(1만1000명), 30대(-6000명) 순으로 순유출 규모가 컸다.

남자는 30대 이하, 여자는 40대 이하에서 입국보다 출국이 많아 순유출된 모습을 보였다.

내국인 총이동자 가운데 남자(24만 5000명)와 여자(23만6000명)의 성비는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내국인 입출국은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다. 입국은 6만5000명, 출국은 8만7000명이었다. 그다음은 30대(입국 3만6000명, 출국 4만2000명), 40대(입

국 3만4000명, 출국 3만5000명)가 뒤를 이었다.

입국한 내국인은 1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40대(-4000명), 30대(-4000명), 10세 미만(-3000명) 순이었다.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3명 중 1명 이상이 취업(36.1%)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 입국자는 전년보다 3만5000명(25.5%) 늘어난 17만3000명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규모다.

그다음 단계(21.0%), 유학·일방연수(17.3%), 영주·결혼이민(12.1%) 순이었다. 단계 입국자(10만1000명), 영주·결혼이민(5만8000명)은 전년보다 각각 1만2000명, 6000명 늘었다.

반면 유학·일방연수 입국자는 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6.7%) 감소했다. 유학만 놓고 보면 9000명(-16.6%)이 줄었

다.

온누리 인구추계팀장은 “2022년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유학과 일방연수의 수치가 크게 늘었다. 그로 인해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전년보다 1만7000명(43.9%) 늘어난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제이동은 월별로 봤을 때, 11월과 12월을 제외하고 모두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가운데 2월에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을 보면 49.6%가 중국, 베트남, 태국 국적으로 집계됐다. 중국(13만2000명)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베트남(7만1000명), 태국(3만5000명) 순이었다.

국적별 출국자 역시 중국(9만9000명), 베트남(4만명), 태국(3만3000명) 순이고, 상위 3개 국가 출국자가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순유입은 중국(3만4000명), 베트남(3만 1000명), 네팔(1만5000명) 순으로 많았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베트남(1만4000명)이 가장 많이 순유입이 늘었고, 그다음 중국(8000명), 네팔(4000명)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총이동자는 남자(43만8000명, 54.8%)가 여자(36만1000명, 45.2%)보다 7만7000명 많았다.

외국인 입국은 20대(16만6000명)가 전체의 35%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30대(11만3000명), 40대(5만3000명), 50대(4만5000명) 순이었다.

출국 역시 20대가 8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8만3000명), 40대(5만명), 50대(4만1000명) 순이었다.

외국인은 모든 연령에서 순유입됐는데 20대(8만1000명), 10대(3만5000명), 30대(3만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10만1000명, 여자가 6만명 각각 순유입됐다.

이루리 기자

## “학교 밖 청소년들, 건강검진 받고 편의점 상품권 받아주세요”

### 올해부터 26개 항목 검진...치료 필요 시 의료비 지원도 8월31일까지 건강검진 받으면 1만원 편의점 상품권 제공

다음 달까지 건강검진을 받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1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꿈드림센터는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는 청소년은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종전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됐다. 이에 고밀도지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궤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1388' 전화 혹은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루리 기자



##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 내달 21일(수)부터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두 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인 가구 대상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21(수)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2일인 오늘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수)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21(수)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18세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첫 '1천만 명' 돌파... 전 국민의 19.51%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

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다.

서다은 기자

믿음 주는 중개

# 제일

공인중개사

# 부동산

신뢰 받는 부동산

대표 정길훈 | 주소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092-1(CU편의점 건물) | 전화 031-462-5800 / 010-4287-0202

##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성관계를 맺은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지원 가능.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건.
- 5.토지: 2,756m<sup>2</sup>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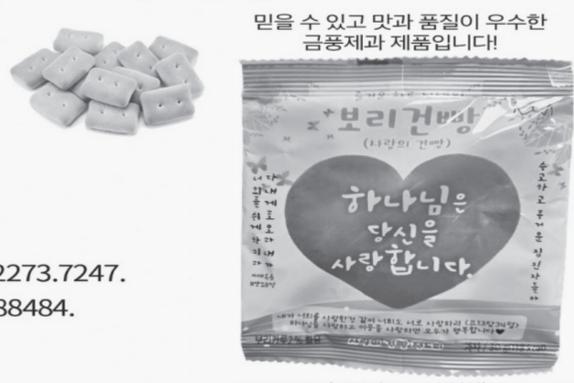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품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 부흥회 특징 ]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장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목회교회 담임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동부총회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 특 징 ]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 네이버검색 인천이룸교회하나님병원 기독교신문뉴스 이명호목사간증

매일오후1시집회  
한국에없는사역입니다  
악한영결박처리할능력  
이목사에게만 임하였음  
어떤병도낫습니다

최모산 목사

유튜브검색 ▶ 인천이룸교회간증  
통변 음성 영안투시 능력사모하는분 와보라  
만수역1번출구앞 사역자공격당함 제거  
전화상담치유 010-5612-4220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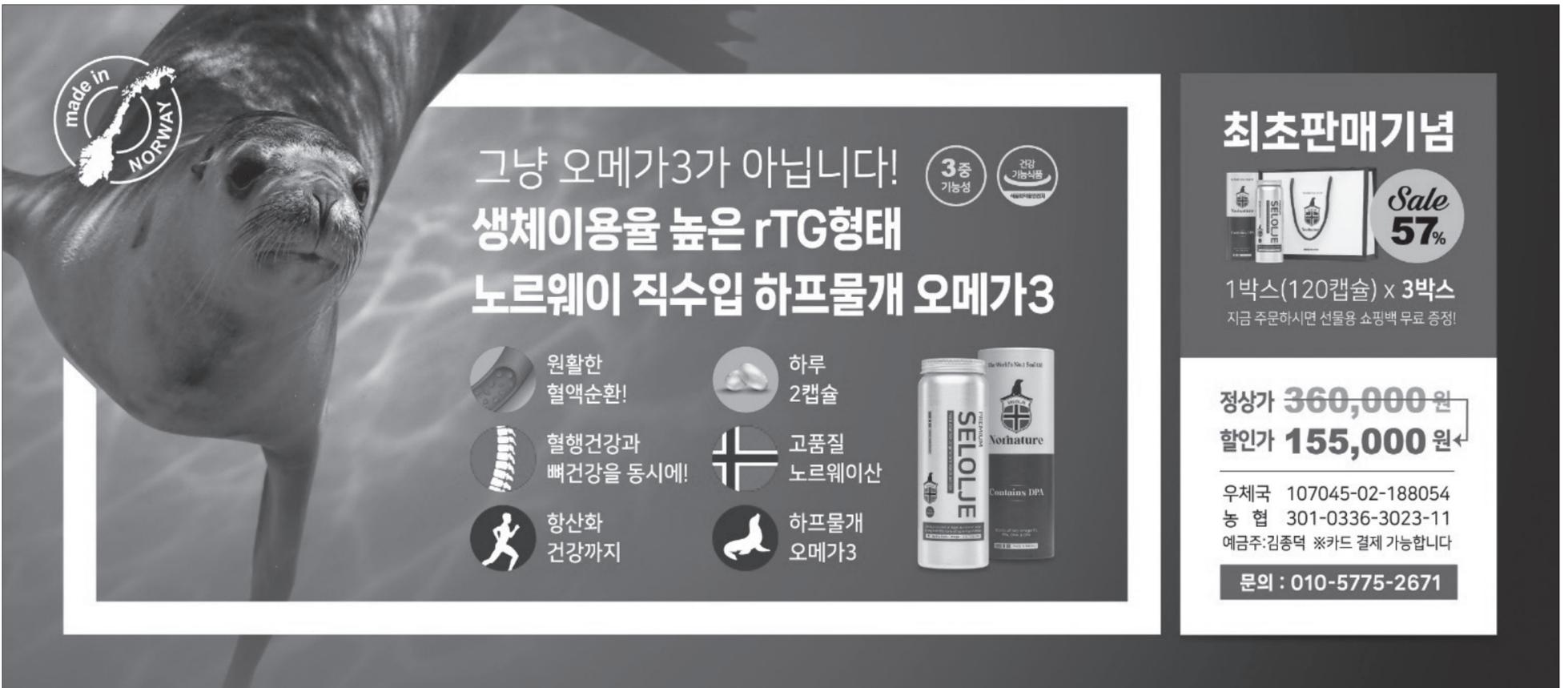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SELOJIE Nornature Contains DPA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더없이 좋은 은혜의 출퇴근길로 인도하는 에세이 묵상

### 신간 '일터에서 만난 성령님'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 소명은 무엇인가?”, “일터에서 나는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위해 일터에 임재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 직장인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워주고자 저자 원용일 소장(직장사역연구소)은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일터에 임재하는 성령님을 여섯 주제, 79편의 에세이 묵상으로 실었으며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비롯하여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크리스천 직장인의 신앙 등을 다룬다.

저자는 책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 공동체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말씀에 이끌렸다는 점이다. 그 중요한 증거는 베드로가 여전히 제자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건재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심문 받을 때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였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를 신

뢰했다. 베드로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돌아온 후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눅 22:32)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했다.

그는 “또한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한 일을 상기시키며 사랑을 확인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다시 금 사명을 주신 일요일 21:15-17)을 다른 제자들도 함께 보았고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해 수긍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리더십이 유지되었다. 제자 공동체에서는 말씀이 리더십의 근거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리더십이 굳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리더십의 유형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착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나바 자신의 발을 팔아 헌금한 일을(행 4:36-37) 참고한다면, 착하다는 표현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성품과 능력을 갖춘 바나바의 헌신으로 뒷날 안디옥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일 중심 스타일의 리더십만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흔히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 강력한 성과 지향 리더십이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성장과 성과가 반드시 일 중심 리더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일터에서도 착한 성품, 온유함으로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나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예수님이 바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고린도에 회심할 주의 백성들이 많으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격려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지속해서 이동하던 선교를 했던 바울은 오랜 기간을 머물기보다 이방인을 찾아(6절) 새로운 전도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린도교회에서는 비교적 오래 머물렀다”며 “오늘날도 도시에 대한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한다. 도시만 전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하며 전도하는 ‘텐트메이커’ 방식으로 전도했던 바울과 아굴라 부부처럼 효과적으로 직업 선교를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 오늘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7월, 작가들의 말말말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제자는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해, 제자도는 오직 형성에 집중한다. 내 어린 시절의 제자훈련은 하나님이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인이 된 후의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이야기, 성품, 관습, 정치로 구성된 도덕 형성의 피드백 고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공동체의 핵심 이야기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미덕과 악덕의 인식을 결정하며, 의례적 예식과 참여를 통해 기억되고 기념되어 공동체의 정치를 형성한다. 동시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동체의 능력이 그 공동체의 정치와 훈련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능력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성품의 공동체가 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마이크 로즈 '그리스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

### 신간

## 그리스도인이여, 믿는 이유를 확실히 알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가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묻는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막상 답을 하려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믿는 믿는데 왜, 무엇을 믿는지, 복음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 스티브강 목사(시카고 에버그레이프교회 담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신앙적 문제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해석으로 정리했다. 난해하고 현란한 접근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 질문과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했던 진리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보여준다.

저자는 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매일

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그분의 존재를 더 의심하지 않게 된다. 왜 악한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는지 질문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분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각 사람을 변화시키심을 기억하게 하신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을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당한 고난의 상황을 넘겨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고 예이미라고 대답했다. 즉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한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언하셨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인간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모든 종교가 서로 모순된다면 할 수 있는 논리적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전부 다 틀렸다고 결정

하든지 아니면 오직 한 종교만이 사실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삶의 참다운 의미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나 자신부터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두가 너무 소중해 예수님은 그의 목숨을 바치셨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명해 내야 한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길 원한다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담대한 순종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신간

## 박정희 김대중 그들이 만든 세상



책 '박정희 김대중 그들이 만든 세상'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길을 외신 기사를 토대로 살핀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1961년 5월16일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79년까지의 시대상이 담겼다. 1969년 3선 개헌을 계기로 대통령 박정희와 김대중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경제부흥의 거대한 축을 이뤘던 박정희의 업적은 컸지만 장

기 집권이라는 트라우마가 드리웠다.

어두운 장막 너머에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희망'이란 싹을 틔우는 야당의 가수들이 있었다.

국회부 기자 출신인 저자 강성주는 “제한된 자유 안에서 우리는 박정희와 김대중이 제시한 꿈을 따라 걸었고 또 그들이 울타리 친 세상 안에서 노력했다”며 “그렇게 쫓겨도 보고 외치기도 하면서 먼 길을 온 뒤 돌아보니, 우리는 그들이 닦은 길 위에, 그들이 만들어 낸 세상 안에 살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정희의 길은 516으로 시작됐지만, 김대중의 길은 516으로 꺾이게 된다. 조국 근대화의 전기를 만든다는 군부의 거사는 ‘의도치 않게 김대중 개인의 불운(不運)으로 이어진다. 박정희는 이를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슬퍼했다. (중략) 미국 정보 관계자들은 한국군의 동향 특히 쿠데타 가능성을 예상하고 거론되는 장교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박정희도 물론 포함돼 있었다. 당시 미군은 한국군 대대(大隊) 단위 부대까지 고문단을 파견하고 있었다.”(79쪽) 조수원 기자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잘 믿지 못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것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키워주세요. '주님과 동행'은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외에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얼마 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가능한 실내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자연 속에서 동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루디아 편집부 '교회여 다시 일어나!'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소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듣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한이 없는 강인한 아버지임을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그러이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디 자유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품에 안고 또 안으셨다.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내 눈 속을 가득 채워 흘러내렸다. 그 이후로 리트릿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현안하기 어려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김명희 외 8명 '영혼들의 잔치: 영성지도 이야기 모음'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었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옥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 매일묵상 네가 정으로 그것을 쫓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 20:25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쫓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은 인간의 기술이나 수고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도록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십자가의 교리를 타락한 본성의 사악한 취향에 맞도록 보

인위적인 시스템으로 다듬고 짜맞추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지혜는 복음을 항상 시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자기도 한 몫 거들고 싶어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준비해 줘야 한다고 꿈꾸며, 겸손과 회개를 신뢰하며, 선행을 극구 칭찬하고, 자연적인 능력을 몹시 자랑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연장들을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애씁니다.

만일 죄인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자신감을 구세주의 사역을 완전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불명예스런

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속 사역에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끝이나 마치 자국이 한 군데라도 나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는데 거기다 무엇을 더 보태려 애쓰거나 주 여호와께서 흡족해하신 것을 더 낮게 만들려고 애쓰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

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떠는 죄인들이여, 여러분의 연장들을 저리 치우고 겸손히 무릎 꿇고 간청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속 제단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의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대해,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계시된 진리를 일찌 조화시키려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불신으로 아주 불손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발견한 그대로 진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들은 다듬지 않은 돌들이므로 여호와와의 제단을 쌓기에 더욱 합당하다는 사실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열방 선교단 제공

## 바이블지식IN

###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선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



요한일서 2:15-16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지만, 요한복음 3: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을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지상과

물리적인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2; 요한복음 13:1) 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간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마태복음 18:7; 요한복음 15:19; 요한일서 4:5).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요한일서 4:9).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로마서 13:8; 요한일서 4:7; 베드로 전서 1:22).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취사선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누가복음 10:30-37). <계속> 갯케스투스 제공

## 날 새롭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2)

\*1723년 5월 5일 안식일 아침

47번째 결심문 작성  
47번째 결심문을 작성했다.

\*1723년 5월 6일 월요일 아침  
하루에 3번 기도 생활에 대한 다짐

기도하기에 아주 적합치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나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세 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1723년 5월 11일 토요일 밤  
시간관리와 기도생활과 결심문 실천에 대한 반성

지난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간을 더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었다. 47번째 결심문을 지키는 것에 대해 우물쭈물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을 태만히 했다.

\*1723년 5월 12일 안식일

아침  
성경 읽기와 독서에 대한 반성

나는 성경과 다른 좋은 책들을 읽는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렸다. 좋은 습관의 실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욱 힘껏 노력해서 좋은 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결심을 했다.

정오  
자연 속에서의 목상이 주는 유익  
뉴욕에서 돌아오는 중 웨스트 체스터에서 했던 목상들을 기억해 보자.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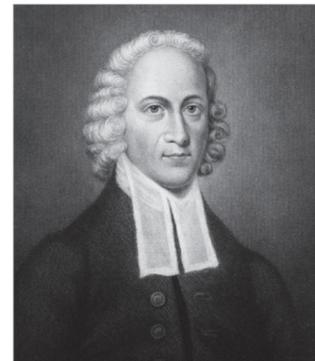
과수원과 참나무 밑에서 가졌던 목상들을 되돌아보자. 어젯밤과 오늘 나는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러한 반성들과 생각들을 되돌아보았다. 이것은 나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었다

오후예배를 마치고  
영적인 기쁨을 맛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생겨나는 영적이고 거룩한 기쁨으로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내 마음은 즐거워하고 있다.

\*1723년 5월 18일 토요일 밤

다른 사람에 대한 함담을 조심할 것

금주는 노위지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보냈다. 오늘 돌아와서 내 친한 친구 존 스미스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다. 지난 수요일 모든 함담을 금하고,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자고 결심했다. 이러한 노력은 내가 함담에 관해서 만들었던 결심문들에 합법적으로 일치하는 지를 평가해 보자는 소원이었다. 또한 만일 내가 허용하곤 했던 그러한 함담들이 합법적이거나 최선의 것이 아니라면 이로써 나는 함담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험해본 이익을 얻게 되고, 철저하게 내 의무로서 지켜야 할 수 있으리라 하는 바람이 있기도 했다. 나의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부패를 전율시켜 이길지도 모른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금주에 내가 결심한 것은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의무라



는 것을 깨닫고 있다.

부모님과 바른 관계

나는 지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큰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다. 비록 당시에는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조언과 교육이 나를 형성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들은 너무나 확실하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매우 많은 기도를 능력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에 있어서 나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 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보호 하고 인도 해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고 방향을 지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전에는 지금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

일반적으로 나는 다른 무엇보다 선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지식과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

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다. 비록 그러한 명제를 가짐으로써 내가 선을 행할 더 큰 기회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게으름에 대한 반성과 주의  
지난 연말일에 있어서 내가 태만하거나 잘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물쭈물 계속 머물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도록 명심하자.

\*1723년 5월 19일 안식일

아침  
하루에 3번 기도 실천에 대한 반성

"지난주의 내 여행에 대해서 돌아볼 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갈 기회를 만드는 것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었다. 지난주, 내가 수요일에 한 결심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집에서 더욱 편리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수요일에 했던 결심을 실천하는 것을 생각하지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변경거리를 마련 하였던 것이다.

밤  
시간 관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2가지 질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덧붙이려고 마음먹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광동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 반세기 광동의 품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 16%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중량용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화 정성, 광동 쌍회진 30회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05)

### 로마서 8장 36절

36.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과 같으니라

·"For your sake: 주를 위하여

·we face death all day long: 우리가 종일~죽임을 당케 되며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



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 즉 옛뱀,마귀라고도 하는 것을 이기는 때는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Then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e lake of fire is the second death.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환란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칼"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즉 모든 환란과 고통을 극복해내는 "정복자들"이다.

### 고린도전서 15:30-31

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 And as for us, why do we endanger ourselves every hour? 31 I die every day--I mean that, brothers--just as surely as I glory over you in Christ Jesus our Lord.

### 갈라디아서 2:20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 ▶해석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to be slaughtered. 23 Awake, O Lord! Why do you sleep? Rouse yourself! Do not reject us forever. 24 Why do you hide your face and forget our misery and oppression? 25 We are brought down to the dust: our bodies cling to the ground. 26 Rise up and help us; redeem us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 ▶해석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 로마서 8장 37절

37.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No: 그러나

·in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일에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 ▶중요한 단어, 속어

more than ~보다 더,~이상으로, more (대명사로): 그 이상의 것(사람), 한층 더 높은 사람, conqueror 정복자, 전승자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conquerors"(정복자)란 결국

### ▶중요한 단어, 속어

all day long 하루 종일, face 얼굴, 얼굴모양, 체면, 정면~에 응감히 맞사다,~에 대항하다,~에 직시하다, consider 생각하다, be considered (as)~: ~로 간주되다,생각되다.

slaughter 도살,학살하다, as sheep to be slaughtered: 도살되어질 양처럼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구절은 시편 44:22 -- 22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를 인용하였다.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대한란 관련 구절로서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서술이다. 유대인들은 대한란 기간 동안 마치 양처럼 죽임을 당하여 제단 위에서 양처럼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양처럼 먹히게 된다. 또한 이런 처지는 고난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 시편 44:22-26

22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 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24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5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푸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22 Yet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 건강상식

# 꼭꼭 잘 씹기, 가장 쉬운 건강법

점심시간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빨리빨리'이다. 한국인에게 느림과 여백의 미가 언제 있었냐는 듯 현대인들은 늘 쫓기듯 살고 있다.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빨리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은 한국인들에게 기다림을 요하는 외국 요리가 답답한 것은 당연지사. 보통 한 시간으로 정해진 점심시간 중 직장인들이 식사에 투자하는 것은 고작 5-10분이 전부다.

식사를 이렇게 빨리 끝내니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태반이며, 천천히 씹어 먹는다면 필요 없을 소화제까지 챙기는 경우도 많다. 가장 간단한 건강법을 우리는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식사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꼭꼭 씹으라"는 말이다. 꼭꼭 씹는 것은 음식을 잘게 부수 소화할 도를 뿐만 아니라 씹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침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익힌 야채나 곡류도 날 것보다 딱딱이 살아 있는 음식이 된다고 한다. 침 속의 유익한 효소가 죽은 식품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침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입 안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의 독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씹지 않는다면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혈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노폐물인 '담음'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담음이 생기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신체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만이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결국 씹기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다.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연진법을 통해 침을 수시로 삼켜 120세까지 장수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다.

연진법은 혀 끝을 윗 잇몸에 대고 잇몸 전체를 마사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입 안에 침이 고이면 삼켜주면 된다. 고치법도 씹기와 침의 효과를 토대로 한 운동법이다.

입술을 가볍게 다문 후 윗나와 아랫나를 서로 부딪혀 주는 것이다. 한 번에 36회 정도 하면 차아 건강은 물론이고 침 분비를 돕고 머리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의욕이 지나쳐서 심하게 부딪히게 되면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이가



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준다면 건강한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껌 씹기가 있다.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돕고 이것이 입 속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역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입 안에 침을 고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달라라' 등의 발음을 자주 반복하고 입 안에 음식이 없어도 혀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귀찮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한 수저에 50번 씹기를 실천한다면 소화는 물론이고 건강을 지켜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000~1500ml 정도의 타액을 분비하는데 주로 씹는 행위를 통해 분비되는 것이다. 침이 분비되지 않아 입 안이 마르면 구취는 물론이고 각종 염증, 잇몸 질환을 비롯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 속에는 항상 침이 고여 있어야 한다. 과식을 막기 위해서도 천천히 잘 씹기는 중요하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식사를 시작하고 20분이 지나야 분비되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 덕분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된다. 이것이 위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막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소형 한의학박사

### 은혜 한 장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신앙과 가정 인사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어느 목사의 간증입니다. 가정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어서 겨우 중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소년가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도축하며 그야말로 백정(?) 소리를 들으며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천대받고 사는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인사만 잘하면 먹고는 산다. 이웃과 나눠 먹으며 살아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성 하나는 좋다는 평을 들으며 살았는데, 그 인사 잘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대학 나온 아가씨와 결혼하는 행운을 얻었다고 인생 이야

기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여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다'는 소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인사를 잘하면, 동네에서도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흥미로운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도전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꾸녕처럼 제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이분은 이

것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나 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사성부터 고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고 멀뚱, 멀뚱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당연하고, 알고 지내니 얼굴 보고 미소 짓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그 인사가 뭐라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

지 않습니다. 잘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인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안 그러는데,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 안 하고 다닙니다. 그냥 핸드폰 보는 척하고 외면합니다. 관광지에서 만나면 외국 사람들에겐 인사를 잘하면서도 한국 사람끼리는 원수처럼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사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손을 내가 먼저 내민다는 표현이기도 합

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관심을 얻고, 관계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행히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에게 칭찬하는 것은 '이 교회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고,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은혜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집니다. 복을 때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좋은 방법은 얼굴 찡그리며 할 수 없습니다. 미소를 짓고 인사를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웃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장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손잡아 보십시오. 관계가 무너졌더라도 웃으며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이 순박한 시도에, 관찮지 않나요? 아름다운교회 제공

### 교회오빠

## 로마로 압송된 바울

오늘의 말씀 / 사도행전 27:1~12  
오늘의 요절 / 사도행전 27:12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결과, 그는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복음이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전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출발시키시는 것입니다.

#### 1. 드디어 로마로(1~5절)

바울은 그가 꿈꾸던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바울과 몇 사람의 죄수를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군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가지고 있

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직하고도 책임감 있는 관리를 붙여주시고, 때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혹시,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 **삶을 위한 묵상** : 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 2. 풍세가 더 험락지 않으므로(6~10절)

바울은 날씨와 계절과 여러 어려움으로 배를 계속하여 운행할 수 없음을 선주와 선장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선

주와 선장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그것을 강행합니다. 항해에 있어서 계절과 기후, 주변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출항을 강행하는 것은 욕심에 사로잡힌 행동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이나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 **삶을 위한 묵상** : 나는 빠른 길을 가고자 합니까? 바른 길을 가고자 합니까?

#### 3.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11~12절)

선주와 선장과 사람들은 바울의 경고와는 달리 왜 출항을 결정했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를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면 위험한 일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닐지라도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상식과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평소 나의 일 처리 습관은 어떻습니까?

♣ **삶을 위한 묵상** : 나의 일 처리 습관을 점검하여 보십시오. 효율이나 나의 이익이 아니라 원칙과 원리를 맞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창골산 봉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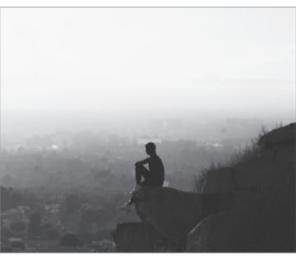
### 이야기하늘나라

## 사람의 일생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만 해야 한다." 그러자 소는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다고 했다.

두 번째,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라." 그러자, 개는 15년은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다.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물을 털어라." 그러자,



원숭이도 15년은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25년만 살아라.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주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저냥 살고, 소가 버린 30년으로는 26살~55살까지 일만 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는 퇴직하고 집 보기도 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는 손자 보며 재물털며 산다. 예수님닷컴 제공

### 성경상식

## 진흙의 발

#### [clay feet]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수수께끼 같은 꿈을 해몽한다. 왕은 꿈에서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을 보았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몸통은 구리, 다리는 쇠였다. 그리고 발은 진흙에 쇠를 섞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나온 '진흙의 발'이라는 말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결함을 뜻한다. 진흙의 발을 가진 거대한 금속 조각상은 오래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들녘 출판사 제공

### 향유옥합

## 참 하나님을 모시라



산마루서신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에게는 늘 우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물질의 우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산의 신 바알이 있고, 현대인들에게는 맘몬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근거로 판단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는 육체적 쾌락의 우상입니다. 영적인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이 우상의 영향력은 인간의 고상함을 더럽히고 인간 사이의 참된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숭고한 창조력을 고갈시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가고 참 영성(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에너지로 인생을 지나가야 합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다양한 연출로 찬양하라

보통의 경우 찬양에 배 중 곡을 반복하고 싶을 때 처음 불렀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반복한다. 그것은 때때로 내가 집을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장소로 가다가 도중에 지갑을 놔두고 온 걸 알아차린 후 다시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가 나오는 느낌처럼 강한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무런 연출 없이 곡을 반복하는 일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나아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영일 목사

곡을 연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하나의 곡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어, 곡을 부르는 사람이 그 곡이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 인도자는 하나의 찬양 곡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마음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능하게 된다. 나는 예배인도자들이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출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Verse와 Chorus 구분하기: 몸 바꾸기

Verse가 곡의 후렴이나 브리지와 오기 전 가장 먼저 부르는 가사를 의미하고, Chorus가 후렴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들의 구분된 이듬처럼 역할과 분위기가 또한 다르다. 나는 종종 예배인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한 곡을 통으로 못쳐서 부르는 경우를 본다. 이는 마치 그 곡을 몸으로 비유했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미니언즈(Minions)의 몸매처럼 시작과 끝이 동일한 굵기로 흘러가는 모양과도 같다. 그들은 목의 경계도 없고

하리의 경계도 없다. 나는 지금 미니언즈의 귀여운 캐릭터와는 상관없이 몸 자체만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예배 찬양 곡의 Verse와 Chorus를 구분하는 연출은 마치 곡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어주는 것과도 같다. 만약, 그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3절 이상 되는 찬양 곡의 가사를 부르는 회중들은 3절이 들어가기마자 집중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는 간혹 곡의 모든 가사를 회중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낱알이 다 심어주려고 하는 인도자의 강한 사명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하지만 첫 계단을 밟아야 두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예배 곡 연출에도 첫 계단(Verse)을 낮추는 시도가 필요하다.

나는 종종 예배팀을 훈련할 때 '첫 소절은 버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곡의 시작부터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곡이 들어가기 전

이미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수준의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 인도 연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일부 성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중이 예배 속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첫 소절을 지나야 가능한 경우를 보아왔다. 따라서 Verse와 Chorus의 구분은 곡의 연출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 과거의 곡 편곡하기: 새 옷 입기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과거의 곡들은 당시 사람들이 최신곡이라고 부르는 곡들이다.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그 당시 처음 나왔던 곡들 중에서 사람들이 활출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위대한 경배 곡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계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의 곡을 새롭게 연출해내는 작업은 시대를 거쳐 무수히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찬송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여> 등의 곡들도 최근의 곡들과 연결하면서 그 곡에 어울리는 시대적인 새 옷을 입혀주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주로 뮤지션들에게 이러한 곡들을 편곡하기 위해서 코드 진행의 재구성, 멜로디 라인, 리듬의 재구성을 요청하기도 하며, 간혹 리듬의 재구성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대의 음악적 흐름에 맞추어 무리하게 편곡하려는 시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회중은 아는 곡을 멋있게 부르길 원하지만 모 두가 아는 곡을 다른 곡으로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편곡은 음악적 탁월함이 기준이 된 연출이 아니라, 그 곡을 아는 사람들이 신선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는 기준에서 하게 되는 연출을 말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일한 곡을 늘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는 지나친 '친숙함'은 지루함과 무관심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팀 휴즈의 말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회중은 예배인도자에게 오랫동안 불려온 곡을 실수 없이 100% 완벽하게 인도하기보다 10%의 연출이 있는 90%의 완성도 있는 찬양에 더욱 감동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확신하는 것은 오늘날의 내 육체와 내일의 내 육체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변화하지 않는 상태는 죽음을 의미하며, 죽은 예배란 변화가 없는 예배를 의미한다. 예배인도자여! 이제 몸을 가꾸고 새 옷을 입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당신 안에 있는 변화에 대한 열정을 교회 안에서 미세하게나마 살아 움직이게 하라! 그것만이 교회회를 살리는 길이다.

## 찬양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찬양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하기로 되어있는 바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분명한 "발견의 빛"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대부분이 찬양대의 역할을 영적인 엔터테이너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찬양이 끝나면 회중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개인에게 어질픈 담례로 허리를 굽혀 박수를 받습니다.



김영국 목사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경배의 노래나 찬양대의 찬양이 끝날 때, 박수가 적절한 경우에는,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열렬한 박수를 유도하며, 회중의 갈채를 인도하는 것이 찬양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박수는 마음이 나가지 않은 적당할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활력이 넘치는 적극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시 47:1).

감명을 주려는 일을 중지하고; 영감을 일으키는 일을 시작하라

그렇다면 그저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대와, 진정으로 회중들을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하는 찬양대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찬양대의 역할은 감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감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찬양대원으로서의 우리의 목표가, 찬양대원들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목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어야 합니다(요 4장).

둘째로, 저는 안내원이 찬양대원의 이상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안내원의 역할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으로 안내하여 그 가는 길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도 찬양대로서의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길을 걸으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대의 역할은 회중에게 드리는 예배도, 또는 회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 그들을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회중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은, 회중을 안내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저는 찬양대가 특별순서로 찬양

하며 회중이 듣고 반응하는 전통적 "성가 찬양(anthem)"이 예배에서 갖는 잠재성과 효율성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특별 성가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이전의 것과 다른 종류의 노래들을 택하고 다른 심령의 태도로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예배인도 찬양대들이 가끔 "가능성" 노래(feature song)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들은 아직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배에서의 예배자의 마음에 "접근수단"으로 의미 있게 쓰입니다. 이 노래들은 듣는 모든 사람의 예배에 놀라운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예배인도 찬양대 패러다임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의 왼쪽 칼럼은 1969년부터 제가 시무했던 교회들의 찬양대에서 얻은 경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새로 개척한 내슈빌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인데, 우리 찬양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차트의 왼쪽 칼럼의 내용은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제 경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실제로 있었던 것

외적징후		내적징후	
전통적인 찬양대	예배인도 찬양대	전통적인 찬양대	예배인도 찬양대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노래한다.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노래한다.	노래의 동역자들	예배와 "사역"의 동역자들
실제 역할: 영적 엔터테이너	실제 역할: 예배인도자	지인 관계	가족 관계
주님을 위해 연주한다.	주님을 경배한다.	경쟁 상대자	성경의 동료
재능(음악)을 축하한다.	주신 분을 축하한다.	근본적으로 지루함.	주로 열성적임.
"칭찬"을 듣고자 함.	"위대하신 하나님"을 듣고자 함.	디렉터: 음악 교수	디렉터: 목회자, 코치, 권위자
사소한 영향을 끼침.	중요한 영향을 끼침.	재능 있는 대원들을 찾는다.	성실한 대원들을 찾는다.

은 아닐 것입니다.

이 차트는 외적 징후와 내적 징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외적 징후는 찬양대가 노래할 때 누구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적 징후는 찬양대만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내적 세부사항들은 사실 외적인 징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 차트를 공부하시려면, 차트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보기로 그중 몇 가지 영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적 징후"에 속해있는, #첫 번째는 "누가 당신의 청중입니까?"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찬양대가 예배의 대상에 집중하도록 돕는

대신에, 저는 음악에 몰두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과 연주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주하는 찬양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도록 이끄는 찬양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적 징후"에 속해있는, #세 번째는 찬양대의 재능이 있는 대원들 가운데, 가장 자주 생기는 감정의 문제로서, 때때로 솔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경쟁 의식에서 오는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길을 걸으면 그런 시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재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능은(당연히 섬김으로써) 성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능은 쓸

모가 없게 되고, 사실은 유해무익하며 파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능은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재능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예배를 효율적으로 인도하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찬양대는 차트에서 보여주는 것같이 몇 개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는 거의 패러다임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할 엄청난 큰일이 아니고, 단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수많은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찬양대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엄청난 변화를 내보여주게 될 것이며, 그 변화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찬양대의 안과 밖에서도 모두 인식할 것입니다.

#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크리스천 미술가들, ‘사도행전’ 주제로 한 작품들 전시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10~15일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이하 KCAF)가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전시회 ‘그림행전-세상 속으로(사도행전)’를 개최한다. 10일 오후 KCAF는 전시회 개최예배를 드렸다.

행사는 1부 예배, 2부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윤창기 집행위원장의 인도로 드렸다. 윤 집행위원장이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서경원 회장(임마누엘교회 미술선교회)이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김정국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가 삶에 성전을 꾸미는 사람들(출애굽기 35:3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여기에 모인 미술 선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의 그림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감성, 영성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회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오늘 말씀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고 하셨는데 모세는 목자였기에 그런 재주가 없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디자이너 혹은 공예가, 건축가였는데 이 사람들의 기술이 성막을 짓는 데 쓰임 받았으며 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하셨다”며 “백성들이 성막을 아름답게 지어달라고 이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꿈꿨던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손으로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쓰임 받게 된 것이다. 역사를 보면 예술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기록이 굉장히 많다. 예술가 중에서도 신앙이 많은데 그중에서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렸으며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렸다. 그 외에 신앙을 가진 예술가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크리스천 미술가들의 모습. ©최승연 기자

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치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백성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성은 영성이랑 함께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 약한 영의 역사가 담겨 있으면 그 예술 작품으로 인해 말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그 작품 안에 넣으면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분명히 쓰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도 좋은 메시지를 전

달 해주시고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배는 이어 김정국 목사가 축도했으며 이어진 축하행사는 내빈소개, 감사패 전달, 사역소개, 선교회소개, 테이프 커팅 및 작품 감상 순으로 진행됐다.

김준영 운영위원장이 사역소개를 했다. 그는 “KCAF는 각 교회의 미술인 선교회 소속의 작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전시한다. KCAF는 지금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독교 미술 단체 선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연합 전시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 10개의 단체가 연합해서 전시하고 있으며 온누리교회, 강원도 미술인협회, 사랑의교회, 영락교회, 지구촌교회, 백석대학원, 기독교 미술선교회, 동원교회, 만나교회, 임마누엘교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연합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아트피스트는 뜻이 미술 잔치인데 그래서 그림으로 잔치를 벌이는 이 전시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 이 전시를 관람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새로남교회, 13·14일 ‘BREAKTHROUGH CONCERT’ 콘서트 개최

리갈팁선정 아시안 최초 월드아트리스트 50인 명단에 등재된 드러머 ‘리노’, ‘RED BULL BC ONE’ 등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비보이 ‘쇼리포스 (Shorty Force)’, 그리고 CCM아티스트 ‘제로 (ZERO)’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선포한다.



은 모습들을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남기독교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기획하고 있는 내용을 현장에서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무료 전체 관람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채널세븐 이사장인 드러머 리노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문화예술인과 기술감독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하여 지역 찬양팀의 활성화를 돕는 일에 새로남기독교교회와 새로남교회가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 14일 주일 저녁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본당 글로리홀에서 새로남기독교교회와 함께하는 ‘BREAKTHROUGH CONCERT’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다음세대 비전을 향한 비전 선언문도 발표한다.

이번 콘서트는 드러머 리노와 쇼리포스, 제로의 공연을 선보이며 회중들에게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뮤지션들의 삶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선배들의 좋은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0 50 생명양식-데일리큐티-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다가복음)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홍) 30 TV강단 성찬(오원호)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세메덴의 언약 (소강석)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익선수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0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생터 왕성교회 김요나 목사	30 크리스천 토크 리더십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4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50 노년대학
8:00	20 신앙예배 30 백세인생	20 명사들의 명랑 50 신사랑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레슨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	00 비전메시지 -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9:00	5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00 세계테마기행 40 힐링스토리 50 말씀의 생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10 새롬게하소서	00 믿음의 리액션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50 말씀노트	20 말씀의 생터 여의도침례교회 국명호 목사 50 말씀의 생터 목길교회 임재호 목사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CBS NEWS 10 20 더 콜링 50 살롱 썰렁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11:00	00 [생방송] 한국교회를 논하다 50 [생방송] CTS 뉴스	20 말씀의 생터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50 크리스천 토크 리더십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50 말씀의 창 - 정주금교회 신경민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필름 (다가복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분영 30 TV강단 만리현성령(조준철)	20 말씀의 창 -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 50 말씀의 창 -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신앙예배 40 [워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	00 주일예배실황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21일만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고평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목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위대한 유산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00 말씀의 힘 산일(배요한) 30 새롬게하소서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5:00	40 7000마일 - 스페셜	0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2024 전국노회 신임원 워크숍 특강 40 노크토크에 돌아봐	00 [말씀] 김용준 목사(열린문자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박윤호 목사(강화하늘중앙교회)	00 다크 더 로드 3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송천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성경 속 회복이야기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박관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0 오직 주님만 솔로 50 목사님 궁금해요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생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생터 분당선교회 윤귀현 목사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0 주만찬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50 행복다이어리	00 말씀의 창 - 아산큰빛교회 김성래 목사 30 말씀의 창 -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위성 50 더 메시지	10 크리스천 슈퍼맘 5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00 TV강단 악대(송규의) 30 TV강단 수월명성(유만석)	00 믿음의 리액션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9:00	0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정의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00 말씀의 생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생터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3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00 TV강단 강남중앙(장찬영) 30 TV강단 베다니(곽주현)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윤차복 목사(영등포비전교회)	0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1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언치유 50 CBS 교회소식	00 장준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가 40 복음강단 - 영통영락교회 고요섭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다니엘 기도회	10 GOODTV 저녁의 기도 2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0 GOODTV 뉴스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10 이석 목사의 열아버린 복음을 찾아서
22:00	30 신앙예배 40 [워킹온더바이블]성경의 땅	10 오원교회 금요철야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00 CBS NEWS 10 20 울포원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금요성령집회 -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희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GOODTV 시네마 누가복음 3부 40 성서의 땅 요르단	00 [컨퍼런스] 언디피티드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다가복음)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에덴교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콜링갯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다크 더 로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THE 행복한 3040 맞춤형도 세미나	10 새롬게하소서	00 새에덴철야예배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TV찬양예배	10 다큐인사이트	00 한국로잔 목회자 컨퍼런스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00 선교사와 함께하는 8시간 미스바 밤생회개 기도성회 3부	00 비전메시지 -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츠워십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찬양의 찬양	30 GOODTV 특별강중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30 잘 믿고 잘 사는 법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	00 말씀의 창 - 필그림선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CTS특선영화 50 바이블프로젝트	00 매일 주와 함께	00 [Global Sermon] Craig Groeschel's True Virtue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10 새롬게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옥한홍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CTS 경건예배 45 박선희 목사의 예수수명의 삶	00 은혜와 찬양 20 힐링송 30 장상길 목사의 생명의 장맛비	10 [말씀] 박신용 목사(열마인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이문식) 50 CBS 교회소식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천여세대  
新주거타운

바로 앞  
용인시 행정타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바로 앞  
초·중 통합학교!

# 반세권 프리미엄을 소유할수있는 마지막 기회!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운동장·송담대역

김량장역

이마트

고진역

명지대역

역삼초·중 통합학교(가칭)

신대지구

역북 서히스타힐스  
프라임시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중

★ 계약금 1천만원 ★

★ 중도금무이자(일부세대) ★

★ 전매제한 6개월 ★

용인의 모든 프리미엄의 길이 **역북 서히스타힐스 프라임시티로 통합니다**

역북 서히스타힐스  
프라임시티

- 미래비전프리미엄** 세계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수혜단지, 삼성 360조 투자, SK하이닉스 122조투자,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 교통환경프리미엄** 광주-용인 경강선 연장(예정),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예정), GTX-A 용인역 개통(예정)
- 통합교육프리미엄** 지구내 초중등 통합학교 신설(예정), 반경 1km 용인고등학교, 차량 5분 거리 역북동 학원 밀집가
- 생활환경프리미엄** 360° 돌봉산 숲세권, 이마트, 롯데시네마, 세브란스병원, 용인시청, 용인시법원, 용인동부경찰서

문의 **1588.5036** 총 912세대 (일반분양 134세대) 59 A·B | 74 A·B | 84 A·B·C 시흥 역북지역주택조합 시흥 서희건설 신학 무궁화신탁

**방문고객 경품 이벤트**

기간 2024년 7월 20일(토) 시간 별도 안내

